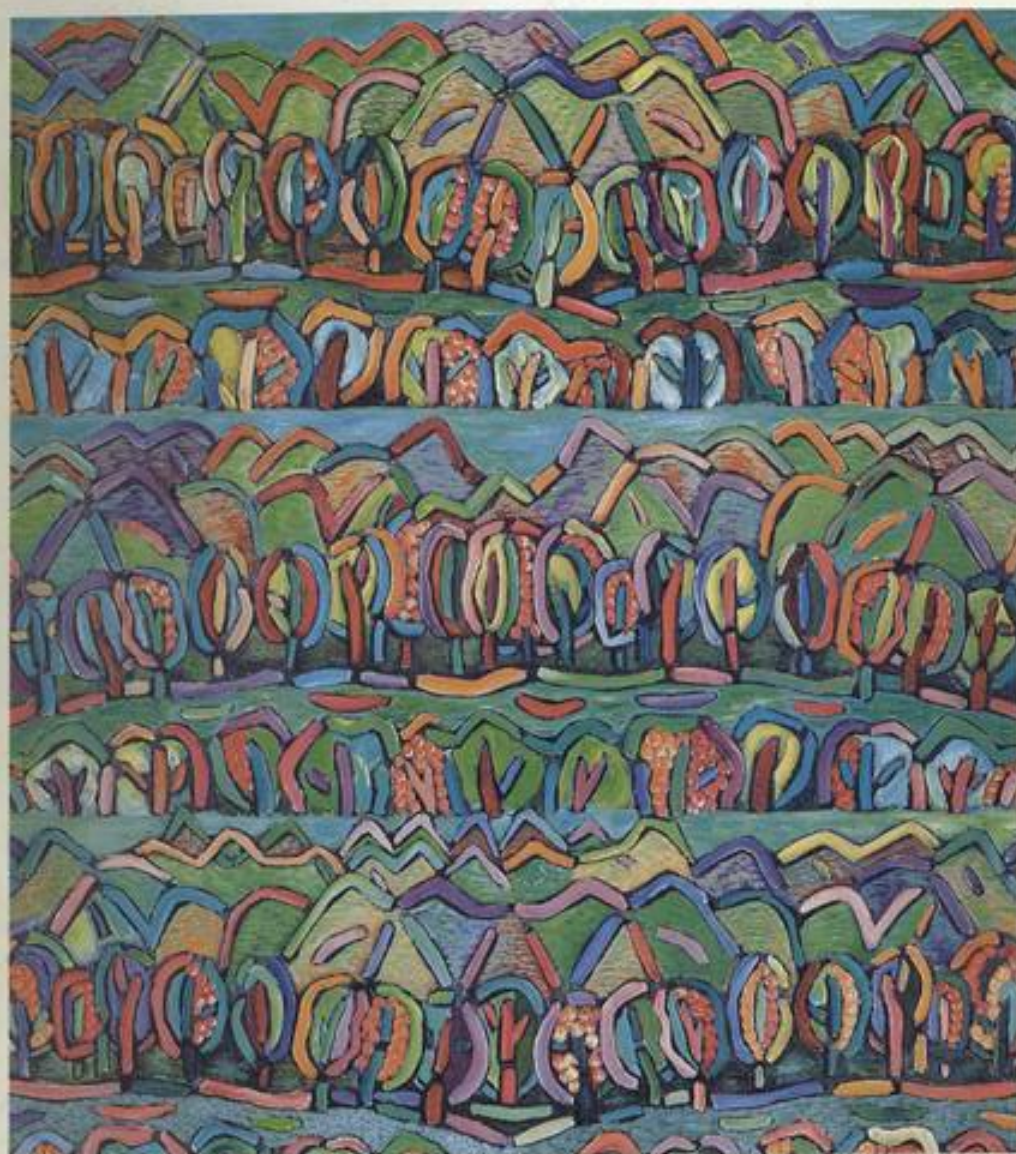


여성

여자의 피부필수품 - 식물나라 기초화장품

월간여성4월호(통권339호) / 1996년4월10일(매월10일) 발행 / 1964년6월13일 등록(서) 라-7 (우편번호 140-013)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특·집

- 1 전국여성단체지도자연수
- 2 생활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96·4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식물나라

수퍼에서 만나십시오.

식물나라
식물나라
식물나라
식물나라
식물나라

와, 진짜 나무같죠? 촉감도 정말 좋은데.



나무귀신 딱따구리도 속았습니다

나무의 질감 그대로 - LG우드룸

·원연원목의 나무결 무늬가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표면을 열보성처리하여 나무의 갈라짐, 크랙을 막아줍니다.
·불나뭇, 너도밤나무, 단풍나무 등 무늬가 다양합니다.
·11가지 무늬 20가지 색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환경소비자가격 49,000원/평 (표준사공비포함)

특수 UV 코팅처리하여 때가 잘타지 않습니다.



●유사상표에 주의하시고
LG우드룸을 꼭 확인하세요.

천 연 원 목 무늬 바 닥 장 식 재

월간 여성

월간여성 4월 통권339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 女聲

정보시대와 여성/이기호

특집/1 전국여성단체지도자연수

특집/2 생활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6 특집/1 전국여성단체지도자연수-주제강연①

정보화사회와 여성/백석기

11 특집/2 전국여성단체지도자연수-주제강연②

여성운동의 방향/박숙자

18 특집/1 전국여성단체지도자연수-종합토론

향후 여성운동방향

25 특집/2 생활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주부의 생활안전의식 어느 정도인가

34 회원단체를 찾아서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BPW)

36 해외여성통신

세계여성의 날 맞아 각국에서 다양한 행사 열려/이영남

40 매스컴에 비친여성/1

연장된 방송시간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고찰/문미원

45 매스컴에 비친 여성/2

참신한 소재의 미니시리즈/임영애

48 기업탐방

LG전자 여성인재개발팀

50 특별기고

제 4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다녀와서①/이연숙

제 4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다녀와서②/김금래

53 여성학 지상강좌

다매체 시대에 더욱 필요한 수용자 운동/박혜란

56 여성계동향/이구경

60 협의회 소식

63 여성관련통계

학교별, 직위별 여성비율

64 우리들의 광장

정보화사회와 여성

백석기 (한국정보문화센터 본부장)

정보사회는 정보매체가 생활의 중심이 되고 정보산업이 기간산업이 되는 사회로
정보화사회는 여성들이 자기성취주의 경향이 높아지며 정신적, 지적 업무의
대폭증가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문화관습의 변화로 남녀의 동질화가 이루어진다.

1. 정보사회란 무엇인가.

정착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1만년	200년(1764년 동력발명)	50년(1946년 컴퓨터발명)
· 천명사상 · 종적, 협업사회 · 소품종 소량생산	· 합리주의(질서, 규칙) · 횡적, 분업사회 · 소품종 대량생산	· 개성주의 · 네트워크, 지식사회 · 다품종 소량생산

1) 정보사회의 정의

- 컴퓨터와 통신이 생활의 필수수단이 되면서 정보가 물질이나 에너지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사회
- 정보매체가 생활의 중심이 되고 정보산업이 기간산업이 되는 사회
- 농경, 산업사회에 이어 필연적으로 오는 사회

2) 정보사회는 언제 오나?

- (1) 고용구조: 정보산업 종사자 > 2차산업 종사자(미국: '56년, 일본: '71년, 한국: '90년대 중후반)
- (2) 정보산업이 기간산업으로 등장한 사회(GNP의 20~30%)
- (3) 정보지수에 의한 비교 방법

(미국 8배, 일본 10배)

3) 한국의 사회구조

- 농업세대 + 산업세대('84년) + 정보세대 공존
- 조직, 기업, 국가 생활에서 이질감(세대, 가치관, 적응력...) 심화

4) 컴퓨터와 통신

(1) 컴퓨터

- 시간극복(작업단축, 능률적 처리)
- 세계에는 2억대 이상의 PC, 모든 주요 기계제품에 부착
- 한국 최초의 컴퓨터는 1967년(PC는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보급, '95년 현재 PC는 600여만대)

(2) 통신

- 거리 극복(동시 생활권의 주역)
- 전화통신망이 점차 정보통신망으로 발전
- 한국의 전화망은 2천만 회선 이상, 정보통신 전용망은 '85년 DACOM NET 개통을 계기로 가속화

5)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

- 미래사회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광 케이블로 건설)
- 미국: NII(10년간 170억\$)
- 일본: 2010년까지 45조엔
- 한국: 2015년까지 45조원

6) 위성통신

- 정지위성: 36,000km, 한국은 '95년, '96년 발사
- 저궤도 위성: 이리디움 시스템(66개 위성, 지상 760km)

7) 컴퓨터와 통신의 접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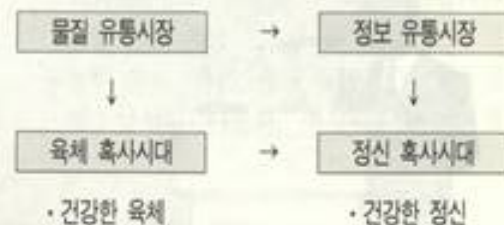
- 세계가 동시생활권에서 정보교류(시간과 거리 극복)
- 국제화와 세계화 가능: 시장단일화, 산업, 문화의 동질화
- 인터넷: 세계 150개국 4천만명(한국 약40만명)
- 한국: 5대 국가 기간망(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
PC통신은 100만명 이상(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등)

8) 정보사회에 흐르는 일관된 특징

- (1) 닫힌사회 → 열린사회(정보공유사회)
- (2) 이용자 중심사회
 - 국민 선택시대(정치, 지역사회사업 등)
 - 고객 선택시대(매스컴, 산업, 학교, 병

원...)

(3) 정신의 시대(질적사회)



- 건강한 육체
- 창조력과 순발력의 시대(무한자원 개발시대)

(4) NETWORK 사회

- 기술, 조직, 업무, 인간관계 등에서 상호 의존 관계
- 분업화 → 협업화(Reengineering, Task Forces, 사업부제도, Matrix 조직)

2. 정보화사회의 문화적 징후

1) 무형자산(지적자산) 문화

(1) 정보지식산업 급성장

- 창조, 고부가가치, 자원절약 상품시장 확대
- 인력자원의 양보다는 질의 시대(두뇌의 존사업, 우수인력은 20배 능력)
- 소유보다는 사용의 시대(특허·상표권,





리스·렌탈산업)

- (2) 국력의 기준도 지적 자산시대로 전환
 - 과거: 국토, 인구, 철강, 병력수, 군함, 핵무기 등
 - 미래: GNP(한국은 세계 12위), 지적재산권, 첨단기술
- (3) 지적자산에서 성공사례
 - 주라기공원: 6,500만달러 투자 → 10억 달러 수입
 - 월터디즈니: '95년, 120억달러 매출에 13억달러 순이익 (만화영화, Character, Entertainment, 방송사업 등)
 - 빌게이츠: 100억달러(손정의 20억달러)
 - 베네통: 매년 3억달러 이상의 로열티 수입
- (4) 한국의 지적시장
 - ① 지적 무역(기술)
 - 수입 11억달러, 수출 2,200만달러 (98%:2%)
 - 일본: 수입 60억달러, 수출 25억달러 (71%:29%) - 한국의 114배 수출
 - 미국: 수입 26억달러, 수출 153억달러 (15%:85%) - 한국의 700배 수출
 - ② 영화: 2,000억원(수출은 1% 수준)

- ③ 비디오: 1조원
- ④ 만화: 300억원(1,000만권 이상)
- ⑤ 음반: 3,700억원(세계 11위)
- ⑥ 컴퓨터게임: 5,000억원(게임기 포함) - '97년에 1조원 예상
- (5) 문화 종속주의
 - 대체혁명에 따라 문화 선진국에 의한 종속화(서구, 미국에 의존 심화)
 - EU는 지역내 방송 프로그램 50% 이내로 외국제 억제

2) 속도의 문화

- (1) 짧아지는 Life Cycle: PC, 자동차, 생활용품, 기호관습 등
- (2) 유연한 조직운영과 신속·능률적 업무처리
 - 사무자동화, 업무 간소화, 속달 서비스, 고속 운송시대
 - Domino Pizza, Fedral Express, Denny's
 - 1회 상품, 조립상품, 기성복, Modular man

3) 키보드(Key board) 문화 형성

- (1) 필기문화의 변화와 정보기기의 생활화 촉진
- (2) 지식정보의 신속, 대량유통과 세대간 문화 격차 심화
- (3) 참여문화 촉진과 인간적 유대 결여

4) 집단문화의 해체와 개성문화

- (1) 권위 해체시대(공동체의식, 전통과 도덕의 약화)
 - 종교, 이데올로기, 문벌, 인종, 민족의식 약화
 - 가격파괴, 가치관 파괴, 카리스마의 변질
- (2) 개성화 경향
 - 다품종 소량생산, 지방분권제, 일촌일품, 일인일기, on Demand 경향(FOD, NOD,

VOD)

- 자유직업인: 미국 4,000만 이상
- 채택근무: 미국 1,000만명 이상
- (3) 귀소본능의 해체
 - 세계인구이동: 매년 10억 인구 장기여행, 배낭족 급증
 - 한국: 서울인구 매년 1/5씩 이전, 농촌 인구 감소

5) NETWORK 문화 형성

- (1) 정보통신의 국제화로 국경해체 가속화: NAFTA, EU, WTO 등
- (2) 분업업무가 협업업무로 변질
 - ISDN(종합정보통신망) = 전화 + PC + FAX('94년부터)
 - 문화·예술의 접목: 음악, 미술, 무용,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접목
 - 상호의존 협력시대 개막: 정보, 시설, 연구, 인력의 공유시대
- (3) 신용사회 형성, 정보문화의 공유화 촉진

6) 근로관습의 변화

- (1) 능력별 성과급 제도 정착, 여가문화 정착
- (2) 전문가 시대의 보편화: 직업인의 자유이동, 직종의 동질화
- (3) 직업선택기준: 개성에 맞는 업무, Privacy 존중, 자율근무(Never Company)

3. 정보화사회와 여성문화

1) 정보문화 확산과 여성의 역할 변화

- (1) 근로환경의 변화
 - 정신적 지적 업무의 대폭 증가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가정 자동화 및 탁아소, 유아원, 양로원 증가로 가사노동 해방
 - 채택근무, 자유직업, 시간근무제도의 확

대

- (2) 문화관습의 변화(Unisex 시대)
 - 핵가족화, 1가구 1자녀 운동으로 남녀차별화 경향 해소
 - 놀이 풍속, 패션, 유행 등에서 남녀 동질화: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 경향

2) 여성의 자립화 경향

- (1) 독신여성 증가
 - 프랑스 1,000만명(40대 여성여론조사: 95%가 독신 선호)
 - 미국, 유럽 등에서도 정보산업 활성화에 맞추어 증가 추세
- (2) 강해지는 자기 성취주의 경향
 - Dink족(Double Income no kids), Tonk족(Two only no kids)
 - 고학력: 일본은 '89년부터 대학신입생에서 여성이 남성 능가(한국은 30%)
 - 미국은 법률가의 20%가 여성이나 매년 30~40%씩 증가
 - 최근 20여년간 새로 생긴 직업중 2/3가 여성차지, 최근 10년간 독립사업 벌려 사장으로 취임한 여성이 남자의 3배
 - 한국의 자유직업인 중 여성비율 확대(정보검색, 스크립터, 일러스트레이션 등)
 - 남성전용 업종(군인, 경찰, 투우사, 레슬링, 권투, 보디빌딩, 도살업 등)에의 진출 활성화
- (3) 결혼생활에의 위상변화
 - 프랑스: 아내 수입만으로 생계유지 가정 14%
 - 연상의 여성증가: 일본은 신혼부부 중 연상여성 20%('70년에는 13%), 미국은 40%('70년에는 20%)
- (4) 한국의 청혼관습: 20대 부부 중 여성이 먼저 청혼-53.6%

여성운동의 방향

박숙자 (연세대 여성연구소, 사회학박사)

여성단체들은 명목상의 남녀평등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구현시키기 위해 여성들이 실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정치사회화하고 진정한 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성평등 문화를 주도하여 이끌어 나가야 한다.

한국의 여성운동은 80년대 이후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산업화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여성에 대한 교육투자가 확대되면서 여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불평등한 지위에 대한 저항이 점차 조직화된 세력으로 확장되어 오늘날은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의 수립 등 가시적인 성과를 부분적으로나마 얻어내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고 하겠다. 대표적인 예로 몇 년간 전혀 문제시되지도 않았던 고임선발고사에서의 성차별적 합격선 문제가 여성들의 단결된 목소리로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었다는 사실만 봐도 우리나라 여성들의 힘이 상당히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의 불평등한 지위나 대우를 해소하고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운동차원에서의 노력은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에서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하여 80년대에는 가족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정 등의 법제도상의 성과를 얻어내었고, 90년대에 들어서는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운동과 고용평등을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 성폭력 추방 활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운동의 성과는 개별여성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힘을 통한 체계적인 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므로

자연히 여성단체의 활동에 기반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단체의 조직력과 활동목표, 사업계획 등은 우리사회 여성운동의 과제와 밀접히 관련될 수 밖에 없으며, 각 여성단체의 활동방향은 바로 여성운동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비단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 민간단체에 기대되는 역할은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에 대한 감시와 평가작업, 그리고 사회의 잘못된 문화를 지적하고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가는 기능, 또한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이라고 하겠다. 과연 우리사회의 여성단체들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성단체들이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단체활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우선 우리나라 여성단체활동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여성운동의 과제는 무엇이며 그 실천적 방안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한국의 여성단체활동, 어디까지 왔나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조직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대략 1896년에서 1898년 사이로 보고 있으므로

50대 부부 중 여성이 먼저 청혼-9.4%

- (5) 한국의 이혼관습: '95년부터 부인의 불륜사유(52%)가 남편 불륜사유(48%)를 역전, 남성의 여성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증가

3) 한국여성의 지위

- (1) 가정 경제 및 자녀교육권 행사에 우위
- on-line 임금제도, 재테크에서의 다양한 정보활용
- 자녀양육 및 교육 정보에서 우위
- (2) 문화, 교양부문에서의 기회 확대
- 여가문화의 생산적 참여 기회 다양
- 각종 평생교육원, 문화교실 등에서 수강생의 80% 이상 차지
- 문화전쟁에서의 잠재력 축적에 유리
- (3) 정보문화에 대한 소극적 참여 의지
- 정보의식, 정보기기 활용능력 취약
- 직업에 대한 프로의식 약화로 전문성 개발, 직장에서의 신뢰도 저조
- (4) 탁아소, 양로원 등 사회복지제도의 미비로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한계

4. 21세기 생활인의 삶의 자세

1) 정보활용의 생활화

- (1) 정보사회에 대한 환경인식
- 정보의 자원적 가치인식
- 정보범죄, 프라이버시, 건전윤리관 확립
- (2) 정보기기(PC, PC통신 등) 활용 능력 제고

2) 전문능력의 발굴 및 제고

- (1) 전문분야의 발굴 및 부단한 재교육으로 개성적인 삶 설계(CDP)
- (2) 원만한 인간관계와 상호의존적인 생활관 체질화

3) 국제사회인으로의 매너와 신용 확립

- (1) 국제인으로서의 교양과 매너
- 상충문화(Cross Culture) 이해
- 언어, 풍속, 예절, 신용
- (2) 신용사회에서의 적응력 제고
- 정보 공유시대에서 투명한 생활로 신뢰 받는 자기관리
- 협업관습 채택(계약정신, 시간, 약속 등)
- Network 생리인식으로 공동체의식 확립

4) 밝고 긍정적 태도

- (1) 정신건강의 증진
- 유연하고, 흥겨운 분위기 조성으로 창조적, 지적 아이디어 생산
- 정보 폭증시대에서 스트레스의 자기정화로 정신건강과 질병예방
- 정신건강의 2대 과제: 두려움, 분노 극복
- (2) 선하고 긍정적인 관습은 성공과 장수의 비결
- X세대에 대신하는 현실 긍정의 Y세대 등장
- 미피의 법칙 대신하는 셀리의 법칙
- S. 모음(84세까지 창작), B. 릿셀(94세까지 평화운동), 피카소(90세까지 창작), 루빈슈타인(89세에 카네기 연주)

우리나라 여성단체활동의 역사는 100년 가까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일제시대에는 조국을 되찾고자 하는 독립운동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진정한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권익신장을 위한 여성단체활동은 광복 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광복 후 50년간의 여성단체활동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광복 후 초기에는 몇몇 선각자적인 여성지도자에 의해 단체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면서 이들 여성들의 정치적 성향(좌익, 우익)에 따라 활동내역이 특정방향으로 치우치기도 하였으며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념때문에 좌익단체는 소멸되어 버리고 우익단체만이 강화되면서 여성단체 지도자들이 정치권력에 밀착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후 6.25전쟁을 겪으면서 전쟁피해 복구사업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정부 중심의 구호사업에 여성단체들이 적극 협력하게 되었다. 특히 가장 거대한 조직의 여성단체가 재정문제로 인하여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체제로 바뀌고 정부의 지원아래 회비를 전국적으로 거두어 들이게 되면서 정부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여성단체가 정부의 동원체제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게되었다. 따라서 당시에도 가족법상의 불평등한 여성의 지위를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을 위한 건의서, 청원서 등을 제출하면서 압력을 가한 몇몇 여성단체의 활동이 있었으나 전혀 기능하지 못하였고 소수의 인물을 중심으로 조직이 유지되는 등 전반적으로 활동이 침체되어 있었다.

다시말해서 이 시기의 여성단체들은 사회봉사의 기능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여성단체활동의 침체분위기는 군사혁명에 의해 시작되어 유신체제로 이어진 60~70대에 들어서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70년대의 유신체제 하에서는 사회분위기가 더욱 권위적이고 억압적이 되면서 단체활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도 강화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여성단체활동 역시 여성적인 교양과 자질의 향상, 회원의 상호친목과 복리, 사회복지를 위한 봉사활동 및 반공활동 등으로 활동분야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감시 등 압력단체로서의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하였고 남녀평등적 가치관을 확산시키며 새로운 문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매우 미약하였다. 이러한 여성단체활동의 기능이 부진했던 이유는 사회전반적인 의식수준이나 여성단체 활동가들 스스로도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여성해방에 대한 의식화가 미약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투자의 증대와 함께 70년대 후반에 도입된 대학에서의 여성학 강좌 및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여성 의식화교육 등의 노력은 80년대 여성운동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으며, 따라서 70년대는 여성단체활동의 준비기였다고 하겠다. 특히 국제적 여성운동의 여파는 국내의 여성단체활동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유엔이 선포한 '세계여성의 해'(1975년)를 기점으로 국내의 여성단체들도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관심은 곧 가족법상 여성에 대한 불평등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가족법개정'을 위한 범여성단체들의 연대활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여성들의 결집된 노력의 결과로 가족법개정이라는 성과를 얻어내게 되었던 것이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의식화교육 등을 통해 저변확대된 여성의 힘은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분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조직력도 강화되었고 활동범위도 소극적인 사회참여와 봉사의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여성운동의 성격을 띠며 여

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들로 확대되었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서서는 여성단체들의 연대활동과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이 강화되었으며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 단순히 정부기관에 건의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때까지 적극성을 보임으로써 법제정을 비롯하여 제도적인 차원의 성과를 얻어낸 점들이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민주화의 분위기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면서 이에 걸맞는 여성정책의 변화가 촉구되었기 때문인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성단체들이 개별적인 활동과 더불어 특정 사안에 대하여 연대활동을 벌임으로써 명실공히 압력단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성과를 얻어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가족법의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등 법적인 면에서의 성과와 정치적인 면에서도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활동을 통해 지자체 선거에서 상당수의 여성의석을 얻어내었다. 동시에 여성단체활동에서 시작된 소비자보호운동, 환경운동, 생협운동 등은 이제 여성운동보다는 시민운동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대중매체 모니터활동도 활발히 전개되어 민간단체의 감시 및 평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광복후 50년간 여성단체활동의 흐름을 검토해 본 결과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처음 몇몇 선각자적인 여성지도자에 의존하여 사회봉사에 집중되었던 단체활동이 이제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여성지도자로 저변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활동노선이나 관심영역도 매우 다양해졌으며, 특히 여성단체들의 연대활동을 통해 여성의 결집된 힘이 얼마나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바람직한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여성단체활동의 과제

위에서 여성단체활동의 흐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동안 여성운동의 주요과제는 법률상의 불평등한 부분을 바로잡고 여성의 권리를 찾기위한 법제도상의 제자리잡기 운동이었다고 하겠다. 특히 80년대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여성고용과 관련된 법제도를 확립하는데 주력하였으며 90년대에 들어서서는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하여 1996년에는 국민 일인당 소득이 1만불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연합개발기구(UNDP)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현황은 그다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27개국중 59위,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세계 55개국중 54위, 행정관리직에서 여성의 참여율은 116개국중 112위이며, 여성개발지수는 130개국중 37위이다. 특히 여성의 세력화지수는 116개국중 90위에 머물고 있으며, 작년도에 국제경영연구소와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공동보고에 따르면 조사국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남녀고용에서 가장 차별이 심한 나라라고 평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볼 때 그동안 여성들이 얻어낸 법률상의 여권신장이(그다지 완벽한 것도 아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헌법을 비롯하여 법률적으로는 남녀평등이 천명되어 있으나 실제 고용관계나 실생활에서는 아직도 성차별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운동의 과제는 실질적인 성평등사회를 이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명목상의 남녀평등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구현시키기 위해 여성단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는 여성들이 실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정치세력화하여 진정으로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 하나는 아직도 곳곳에 팽배해 있는 성차별적 문화를 시정하도록



비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평등의 문화를 주도하여 이끌어가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봉사기능으로 소외된 여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봉사활동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들 세가지 과제는 각 여성단체의 개별활동이나 여성단체들간의 연대활동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정치세력화 과제에 대해서는 요즈음 선거철을 맞이하여 많이 논의되고 있으며, 여성단체들간의 연대활동을 통해 공천할당제를 정당에 요구함으로써 압력단체로서의 기능을 어느정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 행정관리직에서의 여성참여율을 보면 다른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정치권에서의 여성참여율이 스웨덴과 같은 나라에서는 50%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1995년의 경우 정부장관직은 3.8%, 국회의원은 2%의 수준에 불과하여 아시아권에서도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여성들의 법률상의 지위는 상당히 성평등적이다.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가장 돈이 걸리는 법제도상으로는 남녀평등을 천명하고 있지만 실제 고용관행인 임금수준면에서는 성차별이 매우 심각한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여성에게만 주어지던 육아휴직제를 서구사회와 같이 남성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으나 실제 이를 이용하는 남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남성들의 의식구조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여성계의 거센 요구에 밀려 명목상 법조문을 수정해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진정한 남녀평등의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성평등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권에 여성들의 참여를 늘림으로써 여성의 세력화를 꾀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그동안 여성과 관련된 정책결정이나 정책수행의 과정에 여성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는 사실상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여성들의 요구와는 다른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거나 정책이 수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여성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직접적인 참여를 그대화함과 동시에 여성을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활동을 끊임없이 벌임으로써 명목상의 정책에 머물지 않도록 감독하는 과제도 여성단체의 주요 임무라 하겠다.

한편 성차별적인 관행과 문화를 타파하고 새로운 성평등문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 여성단체의 활동은 아직 미약한 편이라고 생각된다. 이 기능의 한 부분으로 그동안 여러 여성단체에서 매스컴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매스미디어의 성차별적인 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얻어낸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전반적인 성차별의식 내지는 남녀분리의식, 성별분업관 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에 대한 의식전환의 문제이다. 요즈음 이혼율의 급증,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 등을 논하면서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때 가장 표적이 되는 것은 어머니, 곧 여성이다.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족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과연 건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여성의 희생위에 이룩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부장적인 가족관계를 당연시 여기면서 동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여성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들을 세우며 여성의 사회활동을 장려하면서도 가정은 항상 여성이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 때문에 가족이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두 어머니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남녀평등사상이 확산되고 있고 여성도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의 개념 역시 다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가정의 민주화, 평등화를 기초로하여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세 구성원이 모두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에 대한 운동이 바로 새로운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양적으로 가장 많은 핵가족을 지칭하고 있으나 이러한 민주화 가족에는 3세대가족, 편부모 가족 등 모든 가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남성들도 남편, 아버지 등 가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장근로시간을 줄이도록 하고 남성위주의 직장문화(음주문화, 회식문화 등)를 타파하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가정의 민주화를 위해 가정폭력(아내 폭력, 남편폭력, 자녀학대 등)을 몰아내는 운동이 요구되며, 취업한 여성들을 위하여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예컨대 학교급식을 확산하고 가사노동 분담(역할의 유연화)을 유도하고 탁아 프로그램과 방과후 어린이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 등의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봉사의 기능면에서 볼 때, 그동안 봉사활동은 여성단체들이 꾸준히 벌여온 활동이었다. 대부분 불우이웃에 대한 물질적 원조활동이 많았으며 불우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도 중요한 기능을 하여왔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필요에 대한 서비스는 앞으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민간단체는 좀더 정서적인 서비스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외되고 피해를 당한 여성들에 대한 상담활동이 요구되며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들과 건강한 가족들간의 연결망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즉 그러한 여성들을 소외집단으로 격리시키지 말고 건강한 가족과 공동체를 이루도록 묶어나가면서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는 작업이야말로 바로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회봉사의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3. 실천적 방안들

그러면 위에서 열거한 세가지 측면에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방안은 무엇인가? 1996년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33개 단체)들의 사업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여성, 96년 3월호) 각 단체의 특성을 살린 전문활동을 제외하고 회원단체들마다 공통적으로 벌이는 사업은 대개 기구조직의 확대 강화, 회원의 자질향상 및 친목강화와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 봉사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사업은 사실상 광복이후 모든 여성단체가 중점적으로 벌여온 사업들로서 단체의 유지존속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의 관심사가 개별단체의 조직화나 친목을 위한 활동보다는 좀더 사회전반적인 여성문제로 관심을 돌리고, 회원들의 교양과 자질 향상보다는 새로운 성평등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여성과 남성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성고정관념을 바꾸는 작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여성단체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여성지도자를 양성해 내는 과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한 내용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감시와 잘못된 점에 대한 고발활동도 여성단체들의 몫이라 하겠다. 이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정리해 보았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실천방안〉

1) 새로운 신세대 지도자의 양성: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신세대 지도자들의 대량 양성이 요청된다. 정치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직생활의 지도경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체조직에서의 경험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단체에서도 세대교체와 새로운 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도자양성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운영하여(또는 단체간 연대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물을 양성하고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정책공약에 대한 감시와 고발활동: '95년 지자체 선거, '96년의 국회의원 선거, '97년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여성을 위한 정책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또 계속 나올 예정이다. 이들 선거공약들은 유권자의 철저한 감시활동과 고발활동이 없는 한 사장되어 버리기 쉽다. 선거때에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유권자를 위해 공약을 해대지만 일단 당선되고 난 후에는 유권자의 권리찾기 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여성정책 공약의 실현성여부를 꼼꼼히 평가하고 이를 여론화시켜 여성정책의 수행에 대한 감시, 고발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 선거에서 나온 공약에 대한 평가는 그 지역의 여성단체조직이 담당하고 전체 여성을 위한 정책공약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들이 연대활동을 통하여 실천여부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3) 이미 정부에서는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중 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 10대과제는 세계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한국여성의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본사업인 셈이다. 우여곡절 끝에 '할당제'는 '목표제, 인센티브제'로 바뀌었으나 이들 10대과제가 충실히 시행된다면 여성의 지위향상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대과제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열거한 것이므로 이들의 시행여부에 적합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정치세력화와는 달리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각 여성단체는 단체의 전문성에 입각하여 해당과제의 실현 여부에 대한 평가와 보완작업을 위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요청된다.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10대 과제

- 1)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 확대 및 내실화
- 2)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 3) 학교급식의 전면적 확대
- 4) 여성의 공직참여비율 제고 목표설정
- 5) 공기업 신규채용시 여성채용 인센티브제도 도입
- 6) 모성보호비용 사회적 부담체계 확립
- 7) 여성인력양성체계 확충·개선
- 8) 여성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축
- 9) 『여성발전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 10)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

예를 들어 식생활개발연구회나 영양사회와 같은 단체에서는 학교급식의 전면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전문직여성클럽과 같은 단체에서는 전문직여성의 공직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성평등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천방안〉

1) 새시대에 적합한 건강한 가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확산시키고 건강한 가정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여나가도록 한다. 예를 들면

-온가족이 모여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직장의 퇴근시간 지키기 운동이나 주 5일 근무제(또는 격주 5일근무제 등) 캠페인 등 남성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운동을 벌인다.

-취업 기혼여성들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급식, 탁아, 방과후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여성단체에서 적극 참여하거나 후원하도록 한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단위의 여가 프로그램을 여성단체에서 개발하여 주최하고 확산시켜 나간다.

-매스컴 모니터링을 할 때에도 여성에 대한 문제만을 볼 것이 아니라 남성문화의 묘사, 부모자녀 관계의 묘사 등을 함께 분석하여 올바른 가족관계를 보여주도록 감시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방송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교육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계몽, 홍보활동을 벌인다. 최근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어린이들의 성차별적 동화책의 범람에 대한 대안으로 성평등적 동화를 쓰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단체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성문제를 주제로 하는 매스미디어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모니터링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2) 가정에서의 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등 사회 모든 곳으로부터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운동을 벌여나가도록 한다. 요즘 청소년들간의 폭력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폭력은 바로 가정과 학교의 체벌을 통해 사회화되고 재생산되는 것이므로 가정과 학교로부터의 폭력추방에 여성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3) 일반여성 및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도록 의식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지도층이

남성들이기 때문에 남성들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의식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여성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홍보와 여성과 남성이 결코 능력이나 감정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는 의식의 계몽활동 등 대 남성공약을 벌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특히 부모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부부역할 및 부모역할 하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사회봉사를 위한 실천방안〉

1) 소외된 여성, 피해받은 여성에 대한 상담활동을 강화하도록 한다. 방송기관의 가족상담 프로그램의 상담내용의 70~80%는 아내구타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학대받은 여성들에 대한 피난처를 마련하는 일과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활동은 매우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미혼모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도 요구된다.

2) 사랑의 삼각근 운동과 같이 불우가정과 건강한 가족들의 연결사업을 여성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벌임으로써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으로써 일회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 제시한 몇가지 실천방안들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일부는 각 개별단체의 전문성에 입각하여 개별단체활동으로 발전시키고 일부는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힘을 모아 압력단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작업이 요청된다고 본다.

다음은 지난 4월 2~3일 전국여성단체지도자연수 둘째날 진행된 종합토론 내용을 녹음본이한 것이다.

향후 여성운동 방향

이번 전국여성대회 주제로 '정보화사회와 여성'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거기에 문화운동, 여성운동의 방향, 환경운동을 접목시켜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지위향상의 전략화 및 여성의 정치 세력화, 통일정책, 가정에서의 교육의 문제에 관심을 갖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사회(본회 이연숙 회장) : 오늘 이 시간은 금년 10월에 있을 전국여성대회 주제에 대한 논의와 앞으로 전국여성단체지도자연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애주(가톨릭여성연합회 회장) : 그동안 전국여성대회 주제는 정치, 경제문제 등을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정보화사회에 우리 여성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대는 여성이 주도권을 잡는 세기가 될 거라고 이 회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앞두고 여성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가 중요하기에 그런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도자연수와 관련해서 의견을 내고 싶은 것은 주제를 가지고 분과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제에 대해 각자의 의견이 나오니까 주제강연 없이도 우리들의 의견이 주제강연에 대치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문수자(국제여성승공연합회 회장) : 앞으로 21세기는 여성이 주도하는 세기가 되리라 봅니다. 20세기까지는 물질 문명이 발달했지만 21세기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정신적인 사회를 주도해 나가야 하는데 21세기는 정보화시대만큼 정보화사회에 여성의 역할에 대한 주제를 잡으면 합니다.

▶ 안치순(부산광역시여협 부회장) :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환경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문제는 지구상의 문제이며 인류가 공동책임감을 가져야하고 환경을 중요시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기에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합니다.

▶ 안선아(대한조산협회 회장) : 어제 강의도 참 좋았고 금년 주제는 정보화시대와 관련해 강의를 더 들었으면 합니다.

▶ 최영희(대한간호협회 회장) : 지난 3월 UN 여성지위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연숙 회장님께서 여성지위향상에 대해 집약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전략으로서 여성의 세력화를 이루어야 하겠고 여성운동의 주류화, 연계화, 실천화를 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이번 여성대회는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전략을 도모하는 주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협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면 더 활성화될 것인가 하는 점을 주제나 발제강연과 연결해 다루었으면 합니다. 또한 강원도 여협은 군 단위까지 지역별 조직의 체계를 잡았는데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해서 지역별로 여협조직의 활성화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세계 ICW에 가서 느낀 것은 여성단체에 부서가

체계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나라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서 즉 경제, 환경, 보건, 정치등을 다루는 부서를 두어 여협의 각 단체가 특성별로 모여 일을 추진하면 여협의 일이 더 잘 강력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영숙(한국퇴역여군회 회장) : 이번 지도자연수를 통해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앞두고 여성의 역할이 달라져야 하며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도 느꼈습니다. 정보화시대에서 여성의 역할을 점차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여성의 역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목자(강원도여협 총무) : 저는 정보화시대를 맞으면서 마음에 부담과 위축감까지 갖게 되고 새로운 시대에서 뒤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난번 북경에서 열린 세계 NGO회의에 갔을때 느낀 것은 여성들이 건문을 넓힐 기회를 많이 가져야겠다는 것과 각 분야별 부서나 위원회를 조직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소인(대한간호협회 감사) :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각 단체가 각각의 단체 목적에 맞게 정보, 환경, 경제, 정치 등의 분야에서 힘을 합치면 일할때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현순덕(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회장) : 어제 강의를 통해 반성도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먼저 정보화사회에 맞게 변

화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

▶ 문수자(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직전회장) : 해마다 있는 지도자연수나 전국여성대회를 통해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부터 여협에서 있는 컴퓨터교육을 통해 컴맹에서 면해보려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두달이상 매일 컴퓨터교육을 받고 있는데 받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대신 저희 또래 연세의 회장님들은 컴퓨터에 대해 미리 겁을 내시지만 제 체험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여성대회는 '정보화 시대와 여성의 자세'라는 주제로 해서 여성들이 정보화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자세가 퍼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윤병길(강원도여협 회장) : 올 10월에 있을 전국여성대회에서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의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관련된 주제나 10대과제중 한두가지를 선택해서 주제로 채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라성숙(한국여류시각디자이너협회 회장) : 이번 여성대회 주제는 정보화시대와 관련된 주제를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과 국가를 이끌어가는 가정주부가 컴퓨터에 앉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것은 너무 시대에 뒤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이번 전국대회때 컴퓨터 쇼 등을 통해 이벤트 행사를 해서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여협의 회원단체나 지방여협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컴퓨터를 통한 전자우편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만들어 긴밀하게 유대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건의하고 싶은 것은 컴퓨터에 여협방을 만들어 여협에서 하는 행사나 여성계 소식등을 알았으면 합니다.

▶ 고기호(한국통일여성협의회 회장) : 저는 현재 컴맹인데 앞으로 컴맹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통일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여성대회때 대통령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정치권의 비자금과 α기금 등 모든 돈을 전부 통일기금으로 만들 것을 건의합니다.



▶ 이요식(본회 회계이사):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전국대회를 통해 여성들에게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강의를 통해 여성들 자신이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며 정보산업에도 뛰어들어 이것을 통해서도 여성지위를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도자 연수때 경비를 각자 부담하더라도 2박3일로 놀러 조직관계, 회원관리관계, 위원회활동관계, ICW와의 관계 등 여러가지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 장성자(한국여성개발원 사업본부장): 해마다 여성대회에 참여하면서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가끔 군단위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하고 있는 여성대회 그 모습하고 똑같이 군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여성대회 주제를 잡는다는 게 전국 여성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사회가 되면 매스미디어의 파급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미 통신으로도 여성들을 비하하고 상품화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들에게까지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에서 여성을 다루고 있는 시각에 대해 여성들 전체가 힘을 합쳐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현재 여협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실증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보화 사회에서의 미디어가 여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잡았으면 합니다. 또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한국통신의 후원을 받아서 여성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종합정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이텔로 여러분께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먼저 01410을 누르시고 하이텔에 접속해서서 공공DB의 메뉴중 여성종합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여성종합정보가 아직 완전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몇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협이 이러한 지도자연수를 하는 것은 여성계동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성개발원 정보자료부에 뉴스를 주시면 저희가 입력을 해서 전국적으로 광고를 해드립니다. 요즘 여성계동향이 점점 확산되고 있고

기자들도 쓰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 김인숙(한국우먼스클럽 회장): 이번 여성대회의 주제는 정보사회의 중요함을 여성들에게 강조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제목을 잡았으면 합니다. 또한 어제 강연하신 백석기선생님께서 상충문화(Cross Culture)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인으로서의 매너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국제인으로서의 매너문제도 다루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하셨지만 분과토의 시간을 가져 작은 모임에서 의견을 모아 큰 주제를 잡았으면 합니다.

▶ 이윤정(우리웃협회 회장):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고 경제적으로도 발전을 했는데 이제 온 국민은 정신교육의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 자존감을 갖는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와서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높은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고 우리웃협회 회장이라는 자리에서 찾을게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여성단체에서 온 국민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자신의 재능을 최고로 발휘하도록 정신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진숙(정무 제2장관실 사무관): 저희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남성위주로 짜여진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사회 구조나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성의 시각과 관점에서 제노나 사회를 보는 눈을 키우고 문제를 지적해서 이슈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에서 공공연히 여성들에게 차별하고 있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스컴은 21세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여성입니다. 여성이 상품화되어 상업적으로 팔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운동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여성조직이 힘이 없는 걸 보는데 특별히 지방조직을 강화하고 지도력을 양성하며 조직기반을 넓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윤원호(부산광역시여협 회장): 이번 여성대회의 주제는 정보화사회와 여성단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두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낙동강을 살리자'라는 캠페인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나라가 정보화시대, 일만불시대, 삶의 질 향상 시대라고 하는데 환경이 오염되고 국민건강이 해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환경은 생명운동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성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고 싶어 저는 이번에 '정보화 시대의 여성 그리고 환경'이란 주제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국여성대회를 지방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올해에 부산에서 한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남상민(한국지수문화협회 회장): 한국여성의 정보문화는 과거의 뿌리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문화적 배경은 우리의 뿌리를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문화를 찾아야 하며 복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여성들이 문화를 바로 익히고 배우는데 여협이 앞장서서 교육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난자(대구광역시여협 회장): 이번 10월 여성대회

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정보화에 관계되는 것으로 맞추었으면 합니다. 정보화시대는 여성이 주도할 것이라고 하는데 정보화 시대에 당당한 주역이 되기 위해서 여성들의 자질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의 여성단체가 결속, 단결해서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습이나 문화를 건전한 문화로 정립하는데 범국민 운동을 벌였으면 합니다.

▶ 김정숙(한국여성개발원 책임전문원): 우리사회가 정보화되어 가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다면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도 정보화 시대에 맞게 비디오나 사진등을 활용해서 교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숙자교수께서 여성단체들의 실천적 과제를 여성의 정치세력화, 성평등 의식문화 향상, 사회봉사차원의 실천과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과제들이 각 단체의 특성에 맞게 꼭 사업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선을 겨냥해 내놓을 수 있는 여성정책을 올해부터 준비했으면 합니다.

▶ 김길옥(한국여학사협회 이사): 지금까지 나온 문제중 테크니컬한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될 수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문화적 측면을 강조했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 작은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줄서기문화' 등을 통해 문화운동을 국민전체로 확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국대회를 통해 여성들에게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강의를 통해 여성들 자신이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며 정보산업에도 뛰어들어 이것을 통해서도 여성지위를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강문옥(부산광역시여협 부회장) : 전문직능인들이 여성운동에 앞장서고 또한 이에 대한 의식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회원들에게 이 부분을 많이 전하려 합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각 단체에서 회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단체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점에서 여성단체장들의 장기집권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김근화(대한조산협회 이사) : 금년에 꼭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여성세력화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순(강원도재향군인부인회 회장) : 해마다 제가 지도자연수에 참석하는데 재향군인부인회에서는 참석하지 않아서 무척 섭섭했는데 이번에도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회장님들께서 각 도에 돌아가시면 내년에는 꼭 참석하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지도자연수를 통해 점차 발전된다는 것을 느껴 무척 감개무량합니다.

▶ 사회 : 이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주제로 나온 것 중 '정보화사회와 여성'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고 거기에 문화운동, 여성운동의 방향, 환경운동을 접목시켜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지위향상의 전략화 및 여성의 정치 세력화, 통일정책, 가정에서의 교육의 문제에 관심을 갖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의견은 전국여성대회 주제위원회에 넘겨서 올 10월의 전국여성대회의 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지적하신 것 중 전국여성대회와 지도자연수의 지역순회 문제는 좀 연구해 볼 과제 같습니다. 전국여성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할 경우 비용문제도 그렇고 해결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로서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지도자연수를 2박3일로 해서 분과토의도 그렇고 여러가지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을 포함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이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사회, 복지사회 만들기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직능단체의 성격별로 주제를 설정해서 함께 캠페인을 하는 활동은 해 봄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해 보겠습니다.

재향군인부인회는 저희 회원단체가 아니기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지도자연수는 여협의 임원과 회원단체, 지방여협, 각 분과의 전문위원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여협은 정식으로 회원단체로 하기에는 매달 이사회에 참석하는 문제도 있고 또한 저희 회원단체들이 대개 지방조직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저희 회원단체 회장과 지방여협 회장이 같은 단체일 경우의 문제도 있고 한 단체에서 지방여협 회장님들이 대거 나오실 경우 한 단체에 편중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지방여협은 협동회원으로 모든 기회는 열고 참석하셔서 이사회에서 표결하는 기회는 부득이 유보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국여성대회에서는 후반부에 모의국무회의를 해서 여성정책을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매스컴에서도 관심을 가질것 같습니다. 정보화시대에는 매스컴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시고 정책도 내셔서 미리 의견을 주십시오.

또한 컴퓨터회사를 초청해서 이벤트를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섭외도 해 주시면 저희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하이텔이나 천리안에 여협방을 아직 설치 못한 것은 저희도 아직 초창기 단계라 겨우 가입만 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정부에서 10대과제중 여성의 정보화의 문제를 다루기로 되어 있고 여성개발원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이 영달이 안되어 실천단계에는 못간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각 지방 여협이 여성개발원과 컴퓨터로 연결되어 하이텔이나 천리안으로

들어가 이야기가 가능하고 의견수렴을 할 수 있어 네트워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지도자연수에 오시면 지방분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모이면 모두 동격이고 오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모두 금쪽같이 받아들이니까 주인의식 가져주시고 계속 주인 노릇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선거때 저희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대여성공약을 받아 내었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가지고 계속해서 장관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겼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통령선거때도 후보들에게 여성공약을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내당중 두당이 여성정책에 대한 의견타진 행사를 가져서 그때 저희가 희망하는 공약을 제출을 해서 대부분이 채택되어 대여성공약으로 발표됐습니다. 또 중앙일보에서는 그 공약에 대해서 어떤 공약이 더 좋은가에 대해 여성계 대표 3명을 불러 대답을 해서 조만간 실리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을 내년에도 기필코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국여성대회때는 결의문과 건의문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내용을 필요가 있어 결의문, 건의문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사가 가능하도록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 신경써 주신 강원도여협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참석자 명단-

이연숙 한국여협 회장
박영혜 한국여협 부회장
정연심 한국여협 부회장
이요식 한국여협 회계이사
조동민 한국여협 조직관리위원
강경화 한국여협 국제관계위원

최영희 대한간호협회 회장
김소인 대한간호협회 감사
김종숙 대한간호협회 총무국장
정진희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총무
노경자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총무
김길옥 한국여학사협회 이사
이지연 한국여학사협회 이사
안선아 대한조산협회 회장
황금봉 대한조산협회 부회장
김금화 대한조산협회 이사
이종순 여성문제연구회 이사
한미란 여성문제연구회 간사
김취복 중앙부인회 회장
한정자 중앙부인회 이사
박애주 가톨릭여성연합회 회장
손연숙 가톨릭여성연합회 이사
박영순 가톨릭여성연합회 이사
이근자 가톨릭여성연합회 사무총장
한신옥 한국부녀복지연합회 부회장
배경자 한국부녀복지연합회 이사
김연미 한국부녀복지연합회 총무
김인숙 한국우먼스클럽 회장
장금자 한국우먼스클럽 이사
윤영중 한국우먼스클럽 이사
차옥지 한국여성문화생활회 감사
박광순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이사
김도숙 국제존타한국연합회 위원
박명숙 국제존타한국연합회 위원
이정인 한국여성크리스천클럽 이사
양만현 한국여성크리스천클럽 이사
이윤정 우리웃음회 회장
백영자 우리웃음회 부회장
현순덕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회장
박종자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부회장
신양수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이사
이원묘 대한영양사회 부회장
문수자 국제여성승공연합회 회장
김숙자 국제여성승공연합회 이사
조지현 국제여성승공연합회 이사
김숙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김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이사
노민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이사
고기효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회장

주부의 생활안전의식 어느 정도인가

본 조사는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에서의 안전의 생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안전에 대한 주부들의 의식 및 행동들을 점검해보고 이를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점검이 필요한 항목을 개발하여, 안전을 생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회 소비자보호연구위원회 제공〉

1. 서론

1. 조사의 목적

요즈음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 몇 년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각종 대형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 가입자 수가 급격히 늘었다는 보도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우리 국민들도 일상생활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리 집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성냥이나 인화물질 보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한 콘센트에 여러개의 코드를 한꺼번에 연결하여 사용하면 안된다던데..."하면서도 "그렇다고 설마 불이야 날까?"하면서 편리함대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사고는 예고없이 불시에 나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아무리 큰 사고라도 그 출발은 사소한 것을 지키기 않았거나 부주의한 데서 비롯된다. 이

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알면서도 일상적으로 막연한 불안감만 가질 뿐 실제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 상황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조사는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에서의 안전의 생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가정의 안전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주부의 안전의식 및 가정내 안전 점검실태 등을 측정해 보고, 일상생활에서 안전한 생활을 어느정도 실천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조사결과는 안전에 대한 주부들의 의식 및 행동들을 점검해보고 이를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점검이 필요한 항목을 개발하여, 안전을 생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며, 결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2. 연구방법

본 조사는 주부들의 안전과 관련한 생활습관 및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 거주 주부 842명을

김제현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이사
윤분선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이사
정영숙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회장
이정자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이사
김연옥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이사
윤수자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직전 회장
권우자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부회장
이영실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총무
남상민 한국자수문화협회의 회장
안정자 한·중여성교류협회 임원
권용자 한·중여성교류협회 임원
라성숙 한국여류시각디자인협회 회장
안경숙 한국여류시각디자인협회 이사
최서정 한국여류시각디자인협회 총무
김화자 한국여성불교연합회 회장
조영희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운영위원
천보경 전도교여성회본부 회장
김보일 전도교여성회본부 부회장
이정자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회장
김은숙 대전시여협 회장
장수영 인천시여협 재무이사
이순복 인천시여협 사무장
성두경 경기도여협 회장
김민정 경기도여협 간사
윤병길 강원도여협 회장
박찬옥 강원도여협 재무
김해광 강원도여협 감사
홍정임 강원도여협 감사
고옥자 강원도여협 총무
윤원호 부산시여협 회장
강문옥 부산시여협 부회장
윤귀남 부산시여협 총무
안차순 부산시여협 이사
최공업 부산시여협 이사
김난자 대구시여협 회장
정수현 대구시여협 간사
나정복 충청북도여협 회장
이쾌선 경상남도여협 감사
박정자 평창군 가정복지과장
최귀녀 평창군여협 회장
정경숙 평창군여협 총무
김하주 평창군여협 회원
김순희 평창군여협 회원

임금진 평창군여협 회원
고경혜 평창군여협 회원
이규자 평창군여협 회원
장성자 한국여성개발원 사업본부장
강정숙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김진숙 정부제2장관실 사무관
김금래 한국여협 사무총장
오혜란 한국여협 기획부장
김용화 한국여협 조직부장
양복숙 한국여협 경리부장
이영지 한국여협 소비자부장
권수현 한국여협 특별사업부장
이화영 한국여협 서무간사
오순옥 한국여협 근로상담간사
이선명 한국여협 출판간사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거친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가지고, 교육받은 본회 모니터 요원이 각 가구를 방문하여 응답자를 직접 만나 개별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분석방법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PC-를 활용, 빈도(Frequency) 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응답자의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평균점수를 계산, 집단별 차이분석도 행하였다.

실제조사는 1996년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10일간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표본추출방법에서 조사의 편의상 임의적인 추출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서울 거주 주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조사결과가 주부 전체의 의식이나 실태라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으며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해보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II. 조사결과 분석

1.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의 특성과악과 자료분류를 위해 배경사항으로 조사한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표1〉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항 목	빈도(명)	백분율(%)
20대	114	13.5
30대	293	34.8
40대	233	27.7
50대	149	17.7
60대 이상	44	5.2
무 응 답	9	1.1
계	842	100.0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13.5%, 30대가 34.8%, 40대가 27.7%, 50대가 17.7%, 60대 이상이 5.2%로, 주로 30~40대 주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1 참조〉

〈표2〉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

항 목	빈도(명)	백분율(%)
중 졸 이 하	83	9.9
고 졸	375	44.5
대 졸	330	39.2
대 학 원 이 상	32	3.8
무 응 답	22	2.6
계	842	100.0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는 중졸이하가 9.9%, 고졸이 44.5%, 대졸이상이 42.0%로, 중졸이하 학력층은 많지 않았으며, 고졸과 대졸이상의 학력이 반반정도씩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3〉 응답자의 가구당 월소득별 분포

항 목	빈도(명)	백분율(%)
100만원 미만	51	6.1
100만원~149만원	181	21.5
150만원~199만원	238	28.3
200만원~249만원	143	17.0
250만원~299만원	114	13.5
300만원 이상	91	10.8
무 응 답	24	2.9
계	842	100.0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0만원~199만원이 28.3%, 100만원~149만원이 21.5%로 응답자 10명중 5명정도의 가구가 월소득 100~199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200만원~299만원 30.5%였으며, 300만원이상의 고소득가구도 10.8% 있었고, 100만원미만은 6.1%였다. 〈표3 참조〉

〈표4〉 응답자가구의 주거형태

항 목	빈도(명)	백분율(%)
자 가	549	65.2
전 세	239	28.4
월세/임대/기타	45	5.4
무 응 답	9	1.1
계	842	100.0

조사대상 가구의 65.2%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세나 월세 등 임대로 사는 가구는 3가구 중 1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참조〉

〈표5〉 응답자가구의 주거형태

항 목	빈도(명)	백분율(%)
단 독 주 택	200	23.8
아 파 트	414	49.2
연 립 주 택	103	12.2
다 가 구 주 택	92	10.9
기 타/무 응 답	33	4.0
계	842	100.0

조사대상 가구의 주택형태는 아파트가 49.2%로 절반가량을 차지하였으며,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

〈표7〉 상품구매시 중요시 하는 점

질문) 평소에 상품을 구입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디자인·색상	가 격	성능·효능	제조회사	안전성	무응답
가 전 제 품	10.1	4.8	55.7	20.5	8.8	0.1
주 방 용 품	30.4	4.3	39.0	9.4	16.5	0.5
차 동 차	7.8	8.1	30.9	18.4	32.9	1.9
유 아·아 동 용 품	32.4	4.0	14.1	4.2	43.8	1.4
식 품	0.2	1.9	5.1	10.0	82.1	0.7
의 약 품	0.2	0.6	43.0	21.5	34.0	0.7
화 장 품	4.4	12.7	39.3	27.6	15.7	0.4

을 합하면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독주택에 사는 가구는 23.8%에 불과하였다. 〈표5 참조〉

〈표6〉 응답자의 취업실태별 분포

항 목	빈도(명)	백분율(%)
전 업 주 부	430	51.1
전 문 직/사 무 직	206	24.3
서 비 스/일 용 직	84	10.0
자 영 업	81	9.6
기 타/무 응 답	42	5.0
계	842	100.0

응답자의 취업실태를 보면, 전업주부가 51.1%로 절반가량 되었으며, 전문직/사무직 종사자가 24.3%, 서비스직/일용직이 10.0%, 자영업 9.6% 등의 순이었다. 〈표6 참조〉

2. 상품구매태도

주부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상품구매시 안전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몇가지 상품별로 물어보았다. 〈표7 참조〉

식품과 유아·아동용품 구입시에는 안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주부가 가장 많았으나, 가전제품, 화장품, 주방용품 등의 구매시에는 안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주부가 그리 많지 않았다.

저연령층, 고학력층 주부일수록 대체로 '성능이나 효능' 또는 '디자인이나 색상'을 더 중시하고, 고연령층 주부들이 상대적으로 안전성을 더 중시하는 편이었으나, 식품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주부들이 안전성을 무엇보다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안전의식

주부들의 안전의식을 안전에 대한 관심도, 주변 환경에서 느끼는 위험정도, 안전교육의 필요성 및 주부의 역할 등과 관련한 문장으로 제시하고, 각각 5점 척도로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표8 참조>

<표8> 안전의식 관련 항목별 응답률 및 평균점수

항 목	응 답	(단위: %)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최근 일어난 것과 같은 여러 안전사고가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느낀다.	22.7	53.8	14.5	5.8	3.2	3.87
우리 주변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많다.	38.4	45.4	10.0	4.4	1.9	4.14
생활안전을 실천하는데 주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34.1	44.7	14.3	5.2	1.8	4.04
다른 곳보다 가정이 제일 안전한 곳이다.	38.0	38.5	13.9	6.2	3.4	4.01
가족들에게 안전을 강조하는 편이다.	34.1	43.6	16.0	4.4	1.9	4.04
생활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2.8	42.5	11.0	2.3	1.4	4.23
평소에 생활안전에 관심이 많다.	26.0	43.3	23.6	4.4	2.6	3.86
아파트나 주택구조 변경시 안전문제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	12.1	12.4	12.4	19.2	43.9	3.71
위험한 행동을 하는 어린이를 보면 주의를 준다.	26.6	48.1	12.0	8.4	4.9	3.83
안전조치와 관련해 관련기관에 건의나 제안을 한 적이 있다.	5.6	19.0	22.8	21.9	30.8	2.47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한 안전사고 때문인지 대체로 주부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었으며, 특히, "생활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데 주부가 가장 많았다. 안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부들은 "생활안전을 실천하는데 주부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들에게도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주부들은 "우리 주변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많다"고 느끼면서도 "안전조치와 관련해 관련기관에 건의나 제안을 한 적"이 있는 주부는 그리 많지 않아, 스스로 평소에 생활안전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하고 있으면서도 안전을 위한 실생활에서의 적극적인 실천은 아직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대한 관심도나 생활안전에 있어서의 주부의 역할,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고연령층 주부일수록 더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변환경의 위험요인이나 아파트/주택구조

<표9> 연령별 안전의식 비교-평균점수

항 목	(단위: %)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전체 평균
최근 일어난 것과 같은 여러 안전사고가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느낀다.	3.85	3.92	3.83	3.85	3.87
우리 주변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많다.	4.20	4.21	4.15	3.97	4.14
생활안전을 실천하는데 주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3.94	4.02	4.00	4.18	4.04
다른 곳보다 가정이 제일 안전한 곳이다.	3.99	4.01	4.02	4.03	4.01
가족들에게 안전을 강조하는 편이다.	3.93	4.01	4.07	4.10	4.04
생활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18	4.30	4.21	4.20	4.23
평소에 생활안전에 관심이 많다.	3.62	3.84	3.95	3.94	3.86
아파트나 주택구조 변경시 안전문제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	3.92	3.82	3.63	3.55	3.71
위험한 행동을 하는 어린이를 보면 주의를 준다.	3.47	3.86	3.89	3.94	3.83
안전조치와 관련해 관련기관에 건의나 제안을 한 적이 있다.	2.09	2.26	2.71	2.70	2.47

변경시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연령층 주부가 더 민감하게 받아 들이고 있었다. <표9 참조>

4. 가정안전 점검실태

주거공간, 전기시설, 가스사용, 난방 등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조치 실태를 26개 항목으로 나누어 주부들에게 체크하게 한 결과, 26개 항목 중 '불량' 항목이 하나도 없는 가구는 1.1%로 극히 드물었고, 한 가구당 평균 5개 정도씩 불량항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량항목이 10개 이상인 경우도 10.7% 있었다. <표10 참조>

주부의 나이가 20대인 경우 불량 항목이 평균 6.32개로 30대이상 연령층에 비해 많았으며, 40대 연령층에서 4.82개로 가장 적었다.

주부의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학력층일수록 가정 내 안전조치가 불량한 항목이 더 많아(중졸이하 4.74개, 고졸 5.05개, 대졸이상 5.44개),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 주부층에서 안전에 대한 실천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26개 항목중 불량항목 수 분포

불량 항목 수	비율(%)	누적 비율(%)
하나도 없다	1.1	1.1
1개	4.7	6.8
2개	13.5	20.3
3개	16.7	37.0
4개	14.1	51.1
5개	12.0	63.1
6개	9.4	72.5
7개	7.4	79.9
8개	5.1	85.0
9개	4.3	89.3
10개	2.9	92.2
11개 이상	7.8	100.0
계	100.0	평균: 5.18개

주택형태별로는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의 경우 불량항목이 더 많았는데, 특히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인 경우 불량항목이 평균 5.71개로 많았으며, 자가소유 가구(평균 4.80개)보다는 전세 등 임대로

〈표11〉 가정내 안전점검 실태-26개 항목별 불량 비율

(단위: %)

항 목	응 답	양호	보통	불량	비례당
옥상, 베란다(주대, APT) 등에 추락방지용 보호망의 설치 상태		31.5	37.4	14.7	16.4
계단의 안전난간 설치 상태		38.7	42.6	10.2	8.4
어린이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콘센트의 안전조치 상태		33.1	46.9	14.5	5.5
각종 전열기구의 전기배선 상태		41.2	45.7	10.7	2.4
보일러실 환기시설		34.8	34.6	10.0	20.7
가정용 소화기 비치 및 작동요령 숙지 여부		17.2	28.7	31.5	22.6
가스용기의 옥외설치 및 안전캡 부착		32.5	27.9	10.7	28.9
가스렌지 호스길이(너무 길거나 파손 여부)		49.6	33.5	8.4	8.4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및 작동 상태		28.5	31.4	18.8	21.4
환기장치 설치 및 환기 상태		36.2	41.7	10.2	11.9
연탄 아궁이 및 연도의 균열 상태		7.6	11.9	3.9	76.6
승강기의 비상시 작동요령 숙지 여부		14.8	29.7	14.3	41.2
주방기구(칼 등 조리기구)의 정리정돈 상태		21.1	44.4	3.1	1.4

항 목	응 답	불량	양호	비례당
방이나 마루, 마당 등에 넘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의 방치 유무		16.4	73.6	10.0
방이나 거실에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장판 등이 미끄러워 넘어질 위험 유무		30.0	59.7	10.2
전열기구(다리미, 밥솥 등)의 표준규격 제품 미사용으로 인한 과열 가능성		17.3	78.3	4.4
1개의 콘센트에 전열기구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합선 가능성		31.1	65.9	3.0
어린이가 불장난할 위험성이 있는 인화물질 등의 방치 유무		12.9	74.0	13.1
어린이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유해물질(성냥, 라이터, 칼) 방치 유무		24.0	62.7	13.3
선풍기 안전망 설치 유무		46.9	40.0	13.1
장롱위 등 높은 곳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의 방치 유무		13.4	80.4	6.2
창문의 파손 및 안전조치 유무		17.7	76.7	5.6
가스렌지의 연결부분 이상 유무		9.9	86.5	3.7
자동차 등의 주차장소에 날카로운 못이나 위험물질의 방치 유무		17.0	66.3	16.7
문, 책상, 가구 등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안전조치 유무		66.6	27.4	5.9
비상시 연락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		54.0	41.4	4.5

사는 가구(평균 5.90개)에서 더 많았다.

가정내 안전점검 항목 26개 중 불량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은 '문, 책상, 가구 등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66.6% 즉, 3가구 중 2가구가 이 항목이 불량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비상시 연락처를 잘 띄는

곳에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54.0%의 가구가 비상시 연락처에 신경쓰고 있지 않았으며, '선풍기에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가구도 46.9%로 많았다.

그외 불량 응답률이 많은 항목은 '가정용 소화기 비치 및 작동요령'(31.5%), '1개의 콘센트에 전열기구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합선 가능성'(31.1%), '방이나 거실에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장판 등이 미끄러워 넘어질 위험'(30.0%) 등으로 10가구 중 3가구 정도가 이러한 항목에서 안전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1 참조〉

〈표12〉 생활안전 실천실태

(단위: %)

항 목	응 답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점)
와출시 소등 및 전열기구의 스위치를 반드시 잠근다.		48.8	34.8	8.1	5.8	2.5	4.22
전열기구를 켜는 때는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은 후 작동한다.		50.8	33.6	9.3	5.3	1.0	4.28
110V와 220V를 잘못 사용해 전열기구를 파손시키기도 한다.		4.4	8.9	14.7	26.4	45.6	4.0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기도 한다.		2.7	7.8	16.5	31.4	41.6	4.01
식품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을 꼭 확인한다.		51.3	29.3	11.0	5.8	2.5	4.21
냉장고 속에 둔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사용한다.		2.5	15.3	17.5	30.9	33.8	3.78
진통제나 해열제 등 약을 별 생각없이 사서 먹는다.		3.2	19.1	17.3	25.5	34.8	3.70
약을 복용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주의깊게 읽는다.		34.7	37.1	16.9	8.3	3.1	3.92
화재나 가스폭발 예방에 관해 평소에 자녀 또는 가족과 이야기한다.		15.4	38.5	28.5	13.8	3.8	3.48
가스통이나 호스, 밸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21.0	33.5	26.4	14.7	4.4	3.52
횡단보도를 건널때 신호가 바뀌자마자 건넌다.		5.9	33.7	19.0	24.9	16.4	3.12
자동차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55.9	29.2	7.8	5.0	2.0	4.32
운전을 할 때 교통안전수칙을 잘 지킨다.		44.0	46.4	5.7	2.1	1.8	4.29
자동차 주유시 시동을 끈다.		52.4	23.3	8.5	8.2	7.6	4.05
운전을 하기 전에 자동차 상태를 점검한다.		18.2	28.9	27.1	21.3	4.6	3.35
주행시 차선을 자주 바꾼다.		3.9	10.9	28.5	38.8	17.9	3.56

안전점검 상태가 양호한 항목으로는 주로 가스렌지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주부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스렌지는 호스 상태나 연결부분 등의 안전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생활안전 실천태도

전열기구 사용, 식품 및 의약품 사용, 화재예방, 교통생활 등과 관련하여 주부들은 실제로 안전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생활화하고 있을까.

〈표12 참조〉

전기제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전기안전에 대한 홍보가 꾸준히 되어와서인지 비교적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출시 소등 및 스위치 잠금'이나 '구입후 사용설명서 읽기', '적정전압 사용', '젖은 손으로 플러그 뽑지 않기' 등은 40% 이상의 주부가 항상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으며 평균 점수도 모두 4점 이상으로 대부분의 주부들이 이러한 측면의 안전조치는 생활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품 및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식품 유통기한 확인'은 생활화되어 있는 편이나, '냉장고 속에 보관된 음식의 유통기한 지키기', '약품 오·남용' 측면에서는 주부 3명중 1명정도만 항상 신경을 쓰고, 35~40%의 주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항목 중 주부들의 안전 실천이 가장 약한 부분은 '도로 보행'과 관련된 것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가 바뀌자마자 건너는' 주부가 40% 정도로 '그렇지 않다'는 주부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보행자 사고가 많은 우리사회에서 아이들의 교통안전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는 주부들의 무감각은 빨리 고쳐져야 할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부 운전자들은 운전시 안전수칙은 매우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부 운전자들은 '운전을 하기 전에 자동차 상태를 점검'하는 사전예방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편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안전 실천체크 항목 중 '냉장고 속에 둔 식품이라도 유통기한을 지키는 것', '진통제나 해열제 등 약품의 남용에 신경쓰는 것' 등은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가 더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화재나 가스폭발 예방 주의'나 '가스 사용과 관련된 안전점검'은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낮은 주부가 오히려 더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연령별로는 생활안전 실천태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동차 안전운전과 관련된 태도에 있어서는 20대 저연령층 주부가 30대 이상 연령층에 비해 안전운전 항목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III. 요약 및 결론

조사결과를 보면 주부들의 안전의식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실제 생활에서의 실천은 아직 의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부들은 우리 주변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많다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안전조치와 관련해 관련기관에 건의나 제안은 별로 하지 않고 있으며, 생활안전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부는 많지만 위험한 행동을 하는 어린이를 보면 주의를 주는 주부는 그만큼 되지 않고, 화재나 가스폭발 예방에 관해 평소 자녀 또는 가족과 이야기하는 주부도 많지 않다.

주부들의 안전의식이 최근의 대형사고에서 기인한 막연한 불안감에 따른 것일 뿐 실제로 안전의 생활화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가정내 안전점검 실태 조사결과에서도 주부들이 생각하는 만큼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안전의식에 관한 질문에서 다른 곳보다는 가정이 제일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6개 점검항목 중 불량항목이 5개 이상인 가구가 절반정도 되고, 10개 이상인 가구도 10% 정도 된다는 것은 막연히 우리 가정이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리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이며 일반 가정에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놓여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모든 사고의 원인이 알고보면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은 아니다.

특히, 고연령층 주부보다는 교육수준이 높은 20대 저연령층 주부들의 가정에 이러한 불량항목이 더 많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들 20대 저연령층 주부들은 안전의식면에서도 고연령층 주부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사실 주부들이 안전에 대해 관심도 많고 사회적으로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부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일상적으로 어떤 점들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또는 어떤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교육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부들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할 것이다.

주부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한 규정과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준이 각각의 단계에서 미리 사전에 점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에 주부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져 일상적으로 생활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실질적인 사회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전조치와 관련한 적극적인 제안이나 건의도 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여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기업들이 제품생산이나 판매과정에서 위험요인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도록 감시역할을 철저히 할 수도 있다.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안전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안전에 관계되는 여러 부문별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96년 4월부터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된다고 하니 매월 하루만이라도 본 조사의 점검표처럼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집안주변을 구석구석 점검하고 체크한다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문제는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옆집에서 가스가 폭발하면 주변 이웃이 모두 피해를 입고, 화재가 나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로 나 하나의 잘못으로 나만 피해를 입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의 작은 부주의로 내 이웃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로서의 생각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결국 그것이 자신이나 가족을 위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생활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회원단체를 찾아서



이정자 회장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BPW)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은 각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직 여성 또는 사업하는 여성들이 모여 함께 공동관심사를 나누고 정보교환을 하며 고도의 직업수준의 도달 유지를 위하여 자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유익한 프로그램을 전개해왔으며, 각종 국제회의를 통해 다른 나라 전문직여성들과의 유대와 친선을 도모해 왔다.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은 1968년 1월 부산클럽(초대회장 박기순)을 시작으로 그 해 10월 주한미군 BPW클럽 회장 무실 단현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아 서울클럽(초대회장 김현자)이 창설되고, 다음 해인 1969년 6월 대구(초대회장 최경주), 북부산(초대회장 유금종)에서도 BPW클럽이 창설되었다. 이렇게 4개 클럽 대의원이 모여 1969년 9월 전문직여성클럽(BPW)한국연맹을 결성, 김현자씨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고 1970년 2월 코리아하우스에서 세계연맹회장 Patience Thomas 여사의 참석하에 BPW세계연맹의 정회원 가입인준식을 가지면서 BPW한국연맹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1994년 외무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올해로 창립 27돌을 맞는 BPW한국연맹은 이제 서울 5개 클럽을 비롯하여 전국에 20개의 클럽과 젊은 전문직 여성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YCW

(Young Career Women)클럽 등 700여명의 회원을 갖춘 대규모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1995년 5월 회원들의 기금으로 마련한 마포사무실에 새살림을 꾸린 BPW는 이정자 회장을 비롯하여 40여명의 이사, 감사 2인을 두고 있으며, 이사회는 연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 국제관계, 회무, 홍보출판, 입법, 보건, 재정 등 7개의 상임위원회와 훈련고용, 환경, 진로지도, 경영기술, 교육문화, 직업교육, YCW, 농업 등 8개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동안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

맹은 각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직 여성 또는 사업하는 여성들이 모여 함께 공동관심사를 나누고 정보교환을 하고 고도의 직업수준의 도달 유지를 위하여 자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유익한 프로그램을 전개해왔으며, 각종 국제회의를 통해 다른 나라 전문직여성들과의 유대와 친선을 도모해 왔다. 특별히 금융기관을 시효로 사무직 여성의 결혼 퇴직제도 폐지에 기여한 점, 최초의 여성지점장을 탄생시킨 주역으로서 은행의 여성책임자·지점장이 배출되는 토양을 조성한 점, 여성차별 정년 무효확인 소송을



후원하여 성공시킨 점, 한국이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기까지 촉구운동을 벌인 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진로지도, 여사원을 대상으로 한 직업관 교육 등은 BPW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특별한 공적으로 꼽을 수 있다.

BPW가 일상적으로 벌이고 있는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세계 전문직여성과의 일체감을 갖는 촛불의식

BPW세계연맹의 창시자인 필립스 여사가 주창한 것으로 해마다 2월이며 세계 각국의 BPW회원국들의 회원들은 전문직 여성들간의 결속과 발전을 다지고 서로간의 유대를 확인하는 촛불을 밝힌다.

▲ BPW Gold Award 수상자 선정

남녀평등과 여성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는 남성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1994년에 제정되었으며 1회때는 500명의 고학력 여성사원을 채용, 여성의 고용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삼성그룹의 이진희 회장이, 2회때는 남녀 동등한 임금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남녀평등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로 미원그룹의 임창욱 회장이, 3회때는 '성희롱방지 지침서'를 제작, 전개열사에 배포·교육하는 등 여성사원의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로 금호그룹의 박성용 회장과 여성발전기본법 제정과 여성사회참여확대방안 10대과제 채택



과정에서 크게 역활한 공로로 강봉균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이 공동수상하였다.

▲ 진로지도와 직업의식 교육

여성의 새로운 직종에의 진출과 고도의 직업수준 유지를 위한 직업인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장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해야 할 여고생들을 위한 바른 진로지도를 하고자 '진로지도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1981년 '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이화여고, 해원여고, 무학여고, 세화여고 등 여자고등학교 뿐 아니라 한양대 등 대학 재학생을 위한 직업의식교육 및 직업정보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여고생의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이제 여대생의 진로지도, 젊은 전문직 여성들의 직업관 교육 등으로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퇴직여성진로사업

정년 등으로 퇴직한 여성이 계속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보람과 성취감을 얻고,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해 사회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 학계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 전문가들로 '퇴직여성사회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미나 개최, 퇴직여성의 조직화 및 재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 기타사업

그밖에도 다양한 직종의 여성 및 동종직종의 여성과의 교류와 정보교환, 미래직종에 대한 탐색, 자질향상 프로그램 운영, 고용상의 불평등 및 고충처리 상담창구, 세계각국의 직장여성과의 교류 및 공동관심사 논의, 타여성단체와 교류해서 연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등 BPW 목적 수행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세계 여성의 날 맞아 각국에서 다양한 행사열려

이영남 (연합통신 외신국 기자)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각국에서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등권 실현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올해 여성의 날은 특히 지난해 9월 여성들에 대한 폭력, 차별, 범죄, 정치 대표 부족 등의 문제를 부각시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북경여성대회의 여파로 특히 관심을 끌었다.

세계여성의 날 각국 표정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각국에서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등권 실현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올해 여성의 날은 특히 지난해 9월 여성들에 대한 폭력, 차별, 범죄, 정치 대표 부족 등의 문제를 부각시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북경여성대회의 여파로 특히 관심을 끌었다.

북경여성대회 2개월후 파리에서 4만명이 참가한 시위를 조직한 마야 수르두츠는 "북경대회는 현상황이 모든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해 주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작업장에서 남녀평등을 신장하고 학교 교과서에서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많은 여성단체가 여성에게 불리한 취업, 낙태권, 여성 정치참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어느 때보다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유럽연합(EU)국가중 여성 정치인 비율이 가장 낮은 그리스에서는 여성단체, 노동조합, 정당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또 여성에게 의석의 절반을 할당하는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 실시를 고려하고 있는 스위스는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내용으로 한 79년 유엔협약을 비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서도 여성해방이라는 주제로 여권운동가와 수녀들간의 합동회의가 열렸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과 대만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으며 마닐라 집회에서는 지난 북경대회에서 거론된 매춘, 빈곤, 외국에서 일하는 2백50만명의 필리핀 가정부 문제가 현안으로 거론됐다.

대만 여성단체들은 임박한 총통선거 후보들에게 주택, 취업주부들을 위한 탁아소 확대, 교육, 사회복지, 정치적 평등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이날 전국적인 축제가

열렸으며 네팔에서는 상징적으로 수감돼 있는 여성 몇 명이 석방됐다. 호주는 여성 수천명이 시드니등 6개 도시에서 행진을 벌였으며 라디오들은 특별 방송을 실시했다.

공산주의 소련의 전통에 따라 여성의 날을 대대적으로 경축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이날을 기해 수백명의 여성 모범수들을 석방,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으며 레오니트 쿠츠마 대통령은 1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홀어머니들과 2차대전 참전 여군들, 10명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 그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현장정화 작업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보너스 연금을 지급했다.

또 모로코 여성운동조합(UAF)은 혼인 입법 개혁을 위해 이혼에 관한 전국적 시위를 벌였으며 요르단은 베이징대회 대표단을 이끌었던 바스마공주가 여성지위에 대한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고 여성복지센터를 개관했다.

남미에서도 브라질의 페르난도 엘리케 카도소 대통령이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개혁을 촉구하는 방송 연설을 했으며 칠레에서는 에두아르도 프레이 대통령의 주재로 각종 축하의식이 거행됐다.

반면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전국여성기구가 기자회견을 갖는 것 외에는 별다른 행사가 준비되지 않았다.

앰네스티, 북경대회 공약준수 각국정부에 촉구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감시기구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국제사면기구)은 각국 정부에 대해 여성난민 보호에서 가정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 지난해 가을 북경대회에서 공약했던 사항

들을 지키는 한편 각국별로 행동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성명에서 북경 선언 및 행동강령은 유혈분쟁의 와중에 시달리는 여성들과 난민, 국내 난민, 여성운동가 등에 대한 배려를 약속하고 폭력을 사용한 여성의 사생활 침해를 규탄하는 등 "각국 정부는 온갖 문제에 관해 공약했지만 아직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구는 여러나라 정부가 이같은 공약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해 성적,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계속 행사하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국가 여성들은 복장의 차이 때문에 살해당하기까지 하는가 하면 여성들이 가족계획의 수단으로 위협과 박해, 투옥 등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걸프지역 여성들, 정치·취업의 벽에 가로막혀

보수적인 걸프국가 여성들은 최근 교육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남성중심 사회에서 조금씩 탈피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치와 노동분야의 권리를 얻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쿠웨이트에 이르기까지 이들 지역 여성들은 석유달러 덕분에 과거보다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들은 아직도 높기만 한 취업의 벽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다.

걸프국가중 유일하게 선거로 선출되는 의회를 갖고 있는 쿠웨이트의 여성들은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로 대학졸업자인 1백여명의 진보적인 여성들은 의사당 앞에서 짧은 시위를 벌여



의원들과 정부관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뒤 셰이크 사드 압둘라 알 사바 왕세자와 아메드 알 사둔 국회의장에게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시위에는 몇몇 남성 지지자들도 동참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여성에 대한 교육 자체가 금지됐던 지난 50년대에 비하면 교육상황은 크게 개선돼 전체학생중 절반 이상이 여성이지만 취업인구중 여성의 비율은 5%에 불과하다.

사우디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남자와 같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의학, 교육 분야는 허용되지만 언론이나 기술 분야는 금기의 영역이다. 최근 정부 부처나 은행들이 여성전용 창구를 개설함에 따라 여성들의 취업기회가 약간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성들은 아직도 취학이나 취업을 위해 아버지나 남편, 남자교사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사회학 교수인 모자 가바시는 30년 전만 해도 이 지역 여성들은 지금보다 자유로웠다고 말한다. 그는 걸프 국가들이 석유달러로 부유해지자 한때 경제활동의 주요역할을 담당해오던

여성들의 노동이 필요없게 된 것도 이유라고 지적했다.

여성들, 에이즈에 점점 취약해져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는 과거에는 남자들이 많이 걸렸으나 지금은 여자들도 남자들 못지않게 많은 수가 감염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하여 에이즈 퇴치에 노력하고 있는 6개 국제기관들로 구성된 유엔 에이즈 프로그램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신체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보다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더 위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남편들과의 성접촉도 여자들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주요 경로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매일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은 출생아 7천5백명.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이 여자이다. 또 전세계적으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2천4백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 가운데 1천만명 이상이 여자들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유엔 에이즈 프로그램의 보고서는 오는 2000년까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성이 1천4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의 3분의 2가 살고 있는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에이즈 감염자의 남녀비율이 5대 6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감염자의 폭발적인 증가추세는 남미의 브라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84년에는 남자 99명에 여자 한 명꼴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으나 그후 10년 뒤에는 여성이 전체 감염자의 4분의 1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서방 국가에서도 나타나

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여성이 HIV 감염자의 20%를 점하고 있으며 스페인에서도 여성 감염자수가 10년 사이에 7%에서 19%로 늘어났다.

아시아에서도 여성들이 에이즈의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 태국과 인도, 캄보디아의 도시들에서는 매춘부의 3분의 1이 HIV 양성반응자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엔 에이즈 프로그램은 에이즈의 증가를 막는 길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에이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와 교육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여성단결대회, 중군 위안부 관련 특별국제재판소 요구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4회 아시아여성단결대회는 아시아출신 '중군 위안부'에 대한 범죄를 다룰 특별국제재판소 창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회는 또 이들 여성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민간기구를 통해 민간차원의 보상에 나선 일본정부가 이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과 생존 희생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법적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회는 "일본정부가 이같은 요구를 수용치 않을 경우 세계여성들은 일본상품에 대한 전세계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 각국의 1백여 대표들이 참석한 이 대회는 이어 한국여성들이 대다수를 이루었던 중군위안부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정부차원에서 공식 사과성명 발표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본정부를 신랄히 성토했다.

일본정부는 40여년전 미국과 체결한 평화조약에 의거 이들에 대한 보상이 해결

됐다고 공식사과 성명이나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당시 중군위안부로 희생됐던 70, 80대의 할머니들은 이날 마닐라의 일본대사관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나 일본대사관 측으로부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여성 참여 확대되면 좋은 정부될 것"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을 제외한 전세계 22개국을 상대로 한 '성과 사회'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여성이 정부기관에 많이 들어갈수록 더욱 좋은 정부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지만 책임자로는 여전히 남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발표했다.

갤럽은 22개국 중 엘살바도르가 유일하게 여성의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면서 그러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정부의 능력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갤럽은 또한 모든 조사대상국의 대다수 응답자들이 여성에게도 동등한 취업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대답했지만 12개국에서 여성이 현재 동등한 취업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연장된 방송시간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고찰

각 방송사는 봄철 개편에 따라 오전 방송을 두시간씩 늘였다. 이에 이 시간동안 각 방송사에서는 시청자들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얼마만큼 만족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종일 방송에 대비하여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청자들을 즐겁게 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 모니터회는 1996년 각 방송사의 봄철 개편에 따라 늘어난 오전 방송 시간(오전 10시~12시)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모니터 대상으로 3월 4일(월)부터 3월 8일(금)까지 5일간 매일 2시간씩 채널 당 10시간, 총 40시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 시간동안 각 방송사에서는 시청자들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얼마만큼 만족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종일 방송에 대비하여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청자들을 즐겁게 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중편된 프로그램 중에는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도 있으나 과거에 방송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아니면 제목만 바꾸어 방송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타 방송사의 인기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비슷한 작품을 만들어 내 보내기도 하고 있다. 각 방송사 별로 프로그램의 변동사항을 살펴본 뒤 문제점 지적과 해결책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KBS1

KBS측에서는 봄철 프로그램 개편의 핵심을 '본격적인 공영성 구축에 둔다'고 하였다. 연장되는

오전 방송시간에 대해 KBS1에서는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생활경제와 자녀교육 상담 등 생활에 지혜를 주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엄마의 방, 자녀교육 어떻게 할까요?'(월~금 9:40~10:00)와 '오늘의 요리'(월~금 10:15~10:35), '생활백과'(월~금 10:35~11:05), '영상 그때 그 시절'(월~금 11:10~11:40)이 새로 자리를 잡은 프로그램들이다.

'엄마의 방, 자녀교육 어떻게 할까요?'는 늘어나는 학원폭력문제를 일주일간 다루었는데 문제제기, 사례연구, 해결책 제시 등 일회성

으로 그치지 않고 연속 제작하여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학원폭력 문제는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가정의 차원으로만 국한시켜 아쉬움을 남겼다.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시간 제약상 소홀히 처리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생활백과'는 차분하고 품위있는 진행이 돋보였는데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편안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 뿐 아니라 전국의 시청자를 흡수하려는 시도로 여러 계층의 공감을 기대하고 있다. 요즈음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감각적이지 않아 별로 시선을 집중시키지는 못하지만 공영 방송사의 이미지에 걸맞는 프로그램이다.

'오늘의 요리'도 신설 프로인데 이근희와 하도성이 진행을 맡아 MBC '선택 토요일이 좋다'를 재연한 듯하다. 이 프로에서는 요리 방법 뿐만 아니라 요리재료 고르기, 식후의 환경까지 다룬다고 하니 전문 요리사가 아닌 진행자의 요리솜씨가 어떨지 호기심을 자아낸다.

'영상 그때 그 시절'은 추억되 살리기 프로그램으로 '사랑의 정감다리'와 비슷한 내용을 제목과 시간을 바꿔 방송하고 있다. 그러나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한 현실에서 50~60년대의 구하기 힘든 옛 화면으로 나이드는 시청자들을 아련한 향수에 젖게 한다. 그러나 'TV 소설 은하수'라는

일일극을 신설하여 양쪽 채널에서 각각 아침 드라마를 방송하는 것은 드라마 흥수를 더욱 실감케 한다.

-KBS2

신설된 프로그램은 유아프로그램인 '열려라 만화동산'(월~금 10:20~10:45)과 '독점 여성시대'(월~금 11:10~12:00)이다. '주부도 경쟁력이다'는 KBS1에서 옮겨와서 방송하고 있다.

이중에 '열려라 만화동산'은 전문 MC 한홍비가 진행하는 미취학기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 교육용 프로인데 MC의 설명 사이사이에 짧은 애니메이션을 곁들여서 어린이들의 시선을 끄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독점 여성시대'는 2TV의 공영성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의 틀을 완성하려는 의지와는 어긋난 프로그램이다. 다루는 관심사가 너무 많아 백화점식 나열에 급급하여서 제대로 된 내용이 부족하다. 와이드 여성정보 프로그램이라는 별칭에 어울리지 않게 첫회(3월 4일)부터 정보와는 상관없는 '남성이 본 여성의 섹시함'이란 주제로 선정적인 시작을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시도로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대학로의 카페, 홍대앞의 카페에서 제작하고 세트배열 등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이 겉치레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건 담고 있는 내용이 여성정보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첫회에서 '여성의 섹시

포인트가 무엇이나'고 묻는 길거리 인터뷰라든가 지하철 송풍구위를 지나가는 여성의 치마를 들추어 카메라에 담은 행위는 여성을 성의 대상으로 밖에 간주하지 않는 발상이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여성정보 운운하며 내보낼 수 있는지 양식이 의심스럽다. '여성시대' 로고 옆에 여성의 붉은 입술을 상징마크로 장식하는 것도 같은 발상으로 눈에 거슬린다. 정미정, 이계진 아나운서의 역할 분담도 여성은 일을 저지르고 남성은 수습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작위적인 느낌마저 든다. 이런 내용들은 요즘 주부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기 보다는 오히려 답답하게 만든다. 카페에서 제작을 한다고 하나 카페의 상호명을 자주 자막에 띄우는 것은 특정 상호에 대한 광고이다. '독점 여성시대'의 경우 다루는 내용을 몇가지로 한정했으면 한다. 와이드가 아니라 단순명쾌하게 교양강좌나 주부대학, 시사성있는 토크 쇼 등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전문화된 정보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MBC

MBC 봄 개편의 목표는 '잃어버린 우리의 고향',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 등 고향을 주제로 한 것들이 많으며 '신 고전주의 부활'을 표방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신설과 폐지 그리고 시간대 변경 등 대폭적인 수술을 감행한 MBC는

타 방송사를 겨냥하여 전형적인 맛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는 최근 2년간 부진을 면치 못한 시청률을 의식한 편성이라고 본다.

'10시! 임성훈입니다'(월~금 10:00~10:50)와 기행 다큐멘터리 '세제로 가는 여행'(월~금 10:50~11:00), 그리고 '여성 아카데미'(월 11:20~11:50)가 신설되었으며 'TV 가요교실'(월~금 11:00~11:20), '주부를 위하여'(금 11:20~11:50)가 새롭게 선보였다. 또 '주부경제 바로 이것'은 제목을 바꾸어 '생활정보 바로알기'(월~금 9:20~9:40)로 방송되었다.

'10시! 임성훈입니다'는 토크 쇼이며 주부참여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표방하고 있는데 개편 특집으로 처음 한주간은 'TV 공개 특집'이란 내용을 내보냈다. 각 요일별로 갱년기 질환, 자궁암, 요통 등 사례연구와 검진, 진료과정을 보여주는 데 시청자를 참여시켜 감진해 주는 시도는 성실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매일매일 진행이 똑같아서 지루함을 느끼게 했다.

'주부를 위하여'는 '당신의 아내가 첫사랑을 만난다면'이라는 주제를 놓고 남편들이 느낌을 이야기하는데 남의 사생활을 들춰내어 너무 가볍게 취급하며 즐기조차 하는 인상이다. 주부를 사고력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어 주부를 위하는 프로라기 보다는 오히려 주부들에 대한 부정적 관

념을 유포시킬 우려가 있다. 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지 모를 지경이다.

'여성 아카데미'도 제목이 주는 분위기에 못미치는 가벼운 생활정보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학문적 깊이가 있는 주제를 다루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TV 가요교실'은 같은 세트, 조명에서 같은 출연자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출연한다. 한주일분을 한꺼번에 녹화하였다가 내보낸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지나친 처사이다. 이런 모습은 시청자를 우롱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MBC가 봄철 개편에서 늘어난 오전 2시간에 보여준 모습은 새로운 시도나 적극적 대응이라기 보다는 구습을 답습하고 있다. 실질적인 정보제공이나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시청자 재교육 또는 연령층의 라이프사이에 맞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때다.

-SBS

SBS는 새해들어 수시로 개편을 했기 때문에 봄 개편으로 인한 큰 변화는 없다. 대신 오전 시간대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청자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다른 방송사가 떠편성으로 일주일 내내 거의 변동이 없는 것에 비해 '이경실의 세상을 만나자'(월~목 9:00~10:00), '굳모닝 닥터'(월 10:10~11:00), '신세대 부모선언'

(화 10:10~11:00), '우리는 여고동창'(수 10:10~11:00), '자연탐사 야생의 신비'(목 10:10~11:00) 등 다채로운 주부대상 정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신설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전에 '특집 쇼 새봄 새출발'을 마련하여 새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새봄맞이 10대 기획 등 새로운 제안도 하였다.

'이경실의 세상을 만나자'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임을 내세우며 기존 정보 프로와 차별화된 내용을 보이고 있다. 네명의 남자 진행자와 하루씩 번갈아 진행하는 토크 쇼 형식의 프로이다.

'굳모닝 닥터'는 이지연이 진행하며 '치매도 고칠 수 있다'는 주제로 치매 진단법, 증상, 치료방법에 대해 사례발표와 전문가의 의견 제시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본격적인 의학 정보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에 성공하고 있다.

'신세대 부모선언'은 '지킬 엄마와 하이드 아빠'를 소재목으로 하여 부모의 이중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포함된 인터뷰와 진솔한 엄마들의 모습을 보여주어 공감을 주었다. 한가지 아쉬움은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김유광 교수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일반 진행자의 역할만 주고 있는 점이다. 또 참가자인 주부들이 남편을 '아빠'라고 호칭하는 것도 귀에 거슬렀다.

'우리는 여고동창'은 공개 오락

프로그램인데 MC인 김창남과 최화정의 멘트가 너무 많아 정신이 없고 출연한 동창생들은 그들의 배경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이 프로는 MBC 'TV 동창회'의 아류이며 소모적이고 시간 낭비적인 프로로서 다른 오락 프로그램과 별다른 것이 없다.

'자연탐사 야생의 신비'도 진행에 무리가 있고 코너별 내용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았다. 성우의 멘트도 적절하지 않고 자극적이었으며 약육강식의 상황을 거름장치없이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주부도 프로시대'는 '주부도 경쟁력이다'(KBS2)나 '생활정보 바로알기'(MBC)와 맞대응해 편성한 신설 프로인데 집안 일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여러 생활상식과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SBS의 봄 개편 중 평일 오전 시간대의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성의 있는 내용과 각 분야의 전문가를 진행자로 내세운 점이 돋보였고 특히 '굳모닝 닥터'와 '신세대 부모선언'은 양질의 정보와 수준 있는 진행으로 오전 시간에 하는 방송에도 불만한 내용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전체적인 고찰

앞서 열거한 프로그램들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몇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토크 쇼의 난립이다. 세트하나 설치하고 매번 그 얼굴이 그 얼굴인 출연자들이 별다른 주제없이 말장난식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쉽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상을 주는 토크 쇼가 이렇게 많은 것은 제작진의 안일함과 무성의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초대 손님의 면모가 비슷비슷하다. 출연자의 중복 출연을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
3. 주부 대상 정보 프로그램은 주로 '의식주' 정보에만 치우쳐 있다. 현대의 주부들은 더 이상 가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고 머무를 수도 없다. 그런데도 방송은 주부에 대한 구태의연한 인식만 고집하고 있다. 주부도 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해주길 바란다. 요즘은 언론에서 인터넷 열풍이 대단하다. 어린이들을 위한 '키드넷'운동도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주

- 부들을 위한 인터넷이라는 말은 어디서도 하질 않는다. 정보화는 주부들과 무관한 것인지, 미래 이 나라의 일꾼들을 책임진 엄마인 주부들을 정보의 무지 속에 방치해 놓고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묻고 싶다.
4. 주부대상 프로그램은 모든 여자들에게 예뻐지라고 강요한다. 생활정보를 준다면서 올 봄 화장 경향이나 헤어 스타일, 피부 손질 등을 앞다투어 보내준다. 이들 프로는 여성의 매력을 젊음과 외면적인 아름다움, 섹시함으로만 몰아 간다. 이는 TV의 상업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멋이란 외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멋,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것도 소중히 다룰 줄 아는 태도가 아쉽다.
5. 방송사마다 유행처럼 다루는 병에 대한 코너는 그만큼 현대인에게 건강이란 최대의 관심



사임을 반영한 것이다. 시청자에게 건강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시도는 바람직하나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병이란 증상이 유사하더라도 병명이 다를 수 있고 같은 병이라도 개개인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무엇보다 정확한 검진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개 방송에서 다루는 정도는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제공받을 수 있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나친 정보는 시청자들을 건강염려증 환자로 만들 소지도 있다.

6. 오전 시간대의 방송은 대개가 20~30대나 30~4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 영유아를 위한 프로나 노인층을 위한 프로는 거의 없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구매력이 있는 시청층만을 염두에 두고 만들기 때문이고 생각한다. 2시간 늘어난 방송시간으로 인해 방송사가 얻는 광고 수익에 비하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투자에 인색하고 구매력이 없는 연령층은 노골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

7. 늘어난 오전 2시간을 포함하여 오전 방송 편성의 문제점으로 '떠 편성'을 들 수 있다. 오후 방송은 개별 편성을 하면서 유독 주부대상이라는 오전 시간대에 일제히 '떠 편성'을 하는 것은 무성의함을 극명하게 드러낸 처사이다. 이것은 주부는 집에서 할일이 없는 사람이

니까 적당히 해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8. 늘어난 2시간 동안 각 방송사당 약 5편의 프로그램, 총 20편을 내보내고 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세분화되어 여러편 나가는 것은 광고방송을 늘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사이의 광고가 방송사의 주 수입원임을 알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수와 광고수가 너무 많다.

-개선방안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측에서 보는 주부는 실제 주부의 모습과 차이가 있다. 그들이 쫓는 대상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일상 생활하는 생활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잠시 반짝하는 이벤트적 요소가 강하다. 요즘 주부들은 지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높아져서 그들의 욕구도 의식주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하다. 전업주부일 경우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자괴감에서 비롯되는 사회참여나 재교육의 욕구가 강하다. 가정내에서의 아내, 어머니, 며느리의 역할에만 만족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며 자아 실현 욕구에도 서서히 눈을 뜨고 있다. 방송은 주부가 할 수 있는 일과 능력을 파악해 각기 자기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전업주부의 역할과 동시에 사회의 욕구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늘어나는 노년인구의 비율을 고려해 편안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텃밭 가꾸기, 나무 키우기, 애완동물 사육 등의 취미를 겸한 경제활동이나 손주 돌보기, 산모 간호, 아이 목욕시키기 등 현실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오전 방송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어린이들의 발달 정도에 맞는 세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데 보여주지만 할 것이 아니라 엄마와 어린이가 함께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많아졌으면 한다. 또한 자영업을 하는 다수의 남자 시청자에게도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같이 오전 방송의 시청자 폭을 주부로 한정시키지 말고 다양한 연령층의 욕구를 반영하는 편성이 필요하다. 방송에 지나친 기대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현재 방송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기대할 만 하고 요구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정리: 문미원 (본회 매스컴모니터)

▶ 매스컴에 비친 여성 / 2



참신한 소재의 미니 시리즈

이번에 모니터링한 '그들의 포옹'과 '프로젝트'는 '젊은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소재도 새롭고 과감한 접근도 돋보인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대부분 드라마들이 구습을 반복하면서 노화를 드러내고 있는데 비해 '그들의 포옹'과 '프로젝트'는 나름대로 변신을 시도하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 모니터회는 미니 시리즈인 MBC '그들의 포옹'과 KBS2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였다. 모니터링 기간은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프로젝트'는 3회부터 8회, '그들의 포옹'은 7회부터 10회(3월 25~26일 결방)까지 방영된 내용을 가지고 토의하였다.

두 드라마는 우선 소재가 참신하여서 이제까지 다른 드라마들의 주요 주제가 되었던 남녀간의 사랑에서 벗어나 사건 중심, 일 중심의 참신한 면모로 시청자들에게 다가오리라고 기대되는 작품들이다. '그들의 포옹'은 각자 판이한 세계에 속한 인물들의 갈등을 시종 진지하게 접근하면서 사건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구성이나 연기면에서 우리가 있으나 세밀한 부분이 다소 소홀하다. '프로젝트'는 젊은이들의 일과 야망, 그리고 사랑까지를 국내외를 넘나들며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

쉽게도 구성이나 편집, 연기가 허술하고 막대한 제작비에 비해 작품 전체의 경중이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적인 고찰

'그들의 포옹'은 그동안 한번도 다루지 않았던 정치자금 형성과 관리,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를 사건의 핵으로 삼고 있다. 사회정의 실현코자 하는 법조계의 젊은이들과 정치적 기득권을 재탈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들, 그와 상반되게 사회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대비가 조금은 무거운 톤으로 그려진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계층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정인(김승우 분)이라는 사법연수생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화해를 모색하는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는 인물들의 절제된 감정표현과 탄탄한 구성이 극의 긴장감을 유지시킨다. 연기자들도 배역을 내면화

하는데 무리가 없어 자연스럽다.

그동안 드라마에서 직업에 대한 왜곡이 나타날 경우 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항의가 종종 있어 왔으나 대개 무시되곤 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포옹'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매회 보이는 자막은 과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물론 드라마가 특정 직업을 왜곡하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사과하고 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타 드라마에 나타난 비슷한 경우에 취했던 조치와 비교해 볼 때 형평을 잃고 있다. 직업에 따라 사과의 유무가 달라진다면 그야말로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조계라는 다가가기 힘든 특수 영역으로 소재를 확대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드라마의 소재가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 제약받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 왜냐하면 어떤 소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드라마로서 적합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직업 묘사에 더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얼마나 큰 활약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우리의 국력이 신장되었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국내 제작에서 벗어나 해외 현지 촬영, 현지인 출연, 이국의 풍광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시청자들의 자존심도 세워주는 드라마이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초점이 분명치 않다. 기업 드라마라고 하기엔 너무 주인공들의 사랑과 갈등이 진하다. 그리고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납치나 총격전이니 하며 홍콩 경영화들 연상시킨다. 장면의 배분도 경중을 잃고 있다. 예를 들면 중요하지도 않는 차기자(김현숙 분)와 나선패(윤다훈 분)가 나오는 장면마다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군더더기 내용이 지루하게 길게 보여지는가 하면, 정작 보여주어야 하는 장면-체코에서 현정(전도연 분)이 술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 외로움이나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전초 작업 등-은 생략하거나 잠깐 비치고 지나간다. 또한 이 드라마의 중심축으로 설정되어 있는 몇개의 이야기를 적절히 안배하지 못하고 있다.

구성도 짜임새가 부족한데 기업이라는 조직의 성격 및 생리, 활

동상황 등에 대한 더 치밀한 조사가 있었어야 할 것이고 기업 드라마라면 인물 중심의 이야기 전개는 과감히 버리거나 최소화시키고 일 중심의 전개를 했어야 한다.

여성의 모습

‘프로젝트’에서 여성은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 주인공인 현정은 최소한의 도덕심도 없어 보인다. 약혼자가 실종되어 죽은 줄 알고 약혼자의 친구와 결혼하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여주는 그녀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약혼자에 대한 미련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고 약혼자를 만나도 갈등도 없다. 그저 친구가 살아 돌아옴으로 인해 괴로와하는 남편에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투정할 뿐이다. 이런 모습은 인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나온 내용이거나 여자를 의리없는, 눈앞의 행복만을 쫓는 단세포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는 사고의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연기자의 미숙한 감정표현이 마음속의 갈등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보이고 있다.

일하는 여성의 모습도 마찬가지로이다. 현정의 대사관 근무시절도 비전문적인 일상의 일을 하는 것과 별로 다를게 없다. 사내에서 사원들의 연수에 관하여 여사원이 과장에게 묻자 ‘남편 돈으로 미국가. 남편 돈 잘 벌잖아’ 하며 편견을 주고 연수는 여사원과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한다. 차기자 역시 기자

로서 일하는 모습은 거의 없고 형우를 쫓아 다니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의상도 문제가 되는데 외국에서 현정의 옷차림은 너무 노출이 심하고 차기자는 기자라는 일의 성격상 활동적인 옷차림이어야 할 텐데 미니 스커트에 하이힐 차림이 대부분이다.

폭력성

‘그들의 포옹’에서는 폭력을 고문과 그외의 폭력, 두 종류로 구분해서 묘사한다. 고문장면은 비교적 세밀하게 보여주고 그외의 폭력 장면은 약간의 동작과 암시로 처리한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폭력을 전혀 다루지 않는 것도 현실을 외면한 처사이겠지만 우리 드라마는 폭력에 대한 미화가 문제가 되어 왔다. 보여주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폭력에 대한 묘사와 타당성이 행해지는 폭력을 차별적으로 묘사하는 태도는 바람직하다.

‘프로젝트’에서 묘사되는 폭력 중 밀매조직 간의 총격전은 우리 드라마에서 보기 드문 장면으로 드라마의 무대가 국제적이다 보니 폭력도 국제적이 된 듯하다. 안상훈(황인성 분)이 브라질 억류 중에 막노동하는 장면에서 그 곳 노동자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기업의 엘리트 사원이었던 그가 언제 그렇게 능숙한 싸움 솜씨를 익혔는지 흥기까지 든 상대방을 때려 눕히면서도 그는 한대도 맞지 않는다. 해외에서 기업 활동을 하

는데 모종의 암투는 있겠지만 그런 농도 짙은 폭력까지 난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 드라마가 진정 기업 드라마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다한 물리적 폭력묘사 보다는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물밑 전쟁, 정보 전쟁 등의 묘사에 더 치중했어야 하리라 본다.

그 밖의 문제들

‘그들의 포옹’에서 송해(이영애 분)가 납치되었다가 한새(안정훈 분)에 의해 구출된 장면 후 납치될 당시 쓰고 있던 모자를 여전히 쓰고 나온다. 그 상황 중에 모자까지 챙겨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흑염소 보약을 아내(김수미 분)에게 주러 갔다가 남편(임현식 분)이 홀짝거리며 다 마셔버린 빈 그릇을 아내가 챙겨쳐 버리는데 그릇 바닥이 너무 깨끗해 약이 들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런 사소한 소품들로 인해 드러나는 실수가 전체 흐름을 깨뜨릴 수도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프로젝트’는 장면들 사이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고 현지 외국인들의 연기가 어색하다.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할 정도의 회사에 대한 묘사도 너무 허술하다. 사장 과 상무의 대화가 너무 감상적이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최첨단 기종을 개발하라는 지시를 사장실



에서 사장이 선 채로 상무에게 말로만 하는 것 등 곳곳에서 년센스를 드러낸다. 체코에서 박형우(최수종 분)가 외국 바이어의 농간으로 곤경에 빠졌을 때 수차례 거리를 방황하는 장면도 한꺼번에 찍어서 몇번에 나누어 보여주는 것이 여실히 보인다. 또한 현정이 술을 마시다 탁자에서 떨어뜨렸던 술잔이 바로 연결된 다음 장면에서 좁은 장면 없이 탁자에 올려져 있기도 하다.

맺는 말

‘그들이 포옹’은 인기 스타를 내세우지 않고서 탄탄한 구성과 절제된 연출력으로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차분하게 작품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세밀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잃지 않는다면 미니 시리즈로서 좋은 작품이 될 것이다.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의 해외 활동에 초점을 맞춘 드라마로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주제이다. 우리나라 경제력의 신장에 소리없이 큰 공헌을 한 이롭 없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고마움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처음 기획 의도에 못미치는 허술함은 아직 이런 내용의 드라마를 만드는 일이 힘에 부쳐 보인다. 보통의 드라마가 작가의 상상력에 많이 의존하는 반면 이런 기업 드라마는 실제적인 현장경험과 치밀한 사전조사 및 논리적인 상황분석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역에 어울리는 캐스팅을 하기 보다는 시청률을 의식하여 인기 스타에 연연한 점이 연기력 미숙으로 나타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또한 통속적인 삼각관계를 설정한 점도 오히려 작품의 일관성을 흐트러놓은 결과를 낳았다.

그렇지만 이번 두 드라마는 ‘젊은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소재도 새롭고 과감한 접근도 돋보인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대부분 드라마들이 구습을 반복하면서 노화를 드러내고 있는데 비해 ‘그들의 포옹’과 ‘프로젝트’는 나름대로 변신을 시도하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제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음을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우리 드라마에 신선한 바람을 불고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정리: 임영애 (본회 데스크모니터)

LG전자 여성인재개발팀

LG전자는 지난 3월 20일 해외주재원이나 발탁승진자를 뽑을 때 반드시 여사원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여사원할당제'를 도입, 국내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본회에서는 이번 '여사원할당제' 도입을 제안하고 추진한 LG전자 여성인재개발팀의 민금란 팀장을 찾아가 보았다.

LG전자 여성인재개발팀은 94년 7월의 첫째 주 월요일의 직원회의를 통해 LG전자 이현조 회장이 회사 경영방침을 노경화합에서 남녀화합시대로의 전환 의지를 표방하면서 여성인재개발의 필요성을 천명하였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착수하여 94년 8월에는 팀원이 구성되었고 9월부터 12월까지 LG전자의 여성인재개발의 현황 분석 및 향후 실천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여성인재개발팀은 1995년을 여성인재개발의 기반구축기로 설정하면서 Task 활동 및 교육을 통해 전구성원의 여성인재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저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고, 올 96년은 전구성원의 여성인재개발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구를 개발하고 추진하며 인사제도 및 시스템 보완의 일환으로 '여사원할당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여사원할당제는 여성인재를 뽑은 시일에 발굴하여 키울 수 있어 여성인재개발의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고 계층별 육성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성들에게도 가능성을 열어준 여사원할당제

여사원할당제는 능력이나 자질이 뛰어나도 불구하고 여성이란 이유로 그동안 능력개발에서 제외되어 왔던 인재를 발굴해 조기에 육성함으로써 여성인재 개인의 비전 실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LG전자의 성장, 발전에도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결정한 부문별 할당비율은 조직책임자 1%, 발탁승진자 5%, 지역전문가 5%, 기능직 애프터서비스요원 3% 등이다. 이러한 할당제는 숫적인 측면에서 보이는 할당 자체는 작은 수치이지만 실상은 자격기준에 이르는 근속경력을 갖춘 여사원이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높은 목표치이기 때문에 여성인재를 개발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조직책임자 임명은 1%로 설정했지만 실제 조직책임자에 임명되기 위해선 일정한 경력과 자격, 근무연수가 필요한데 이들 필요 자격기준을 두루 갖춘 여사원이 현재 1%에 못미치고 있다.

여사원할당제는 과거, 여성에게는 열려있지 않던 문이 이제는 여성들에게도 열려졌다는 점에서 여성들도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자신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도 끊임없는 자기개발에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서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업도 장기전에 대비해야

몇 년 전부터 국내 최대의 기업이 여성을 남성과 구분해 따로 모집하는 제도를 통해 여성인력을 대폭 늘리는 파격적인 인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렇게 여사원을 따로 공모하는 것에 대해 LG전자 여성인재개발팀장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항구적인 여성인재개발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남녀 구분없이 능력껏 일하고 능력껏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성인력을 개발해야 하며 질높고 창의성을 갖춘 여성인력의 육성과 활용은 앞으로의 무한경쟁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사안임을 기업들은 주지해야 할 것이다.

변화해야 할 여사원들의 직업태도

기업에서 소수의 여사원들은 주목받게 마련이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나서 주목을 끄는 경우보다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더 드러난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여사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소화해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여자가기 때문에'라는 편견으로 낙인찍히기 쉬운데 이는 현재의 여사원들이 감당해 내야 할 부담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몇가지 지적된다. 여성인재개발팀의 민금란 팀장은 남성사원의 경우 팀워크를 중요시하며 개인의 입장보다 조직을 우선 생각하는데 비해 여사원은 대체로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다고 지적한다. 여사원의 경우 아직은 대부분 조직보다 본인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때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여성들의 조직의식결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은 한시적인 직장관을 가지고 있으며 여차하면 떠나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직에서는 여사원의 입사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최대의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적은 여성들을 인재로 키우려는 인사정책은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여성들이여, 미래를 향해 도전하라

이제 우리 사회와 기업은 변화하고 있다. 또한 변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강조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남녀의 성별 분업은 점차 사라지고 있고 여성들도 자아실현에의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성별 구분을 떠나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창의력과 적극성을 띤 인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적 요청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관문을 통과해 가는 여성들이 앞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철저한 직업의식과 자기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 미래사회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안목을 키워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제 여성들은 미래를 향해 도전해야 한다.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4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다녀와서 ①

이연숙 (본회 회장)



▲ Women's Linkage Caucus에서 사회하는 이연숙 회장.

1996년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40차 여성지위위원회는 북경대회 이후의 후속조치, 여성지위에 관련된 통신,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 회의준비와 제41차 여성지위위원회의 의안결정 등을 놓고 주말을 제외한 만 10일간의 열띤 토론과 협의가 진행되었다. 북경대회를 준비했던 지난해의 위원장이 경질되고 바하마의 Sharon Brennen Haylock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부의장으로는 불가리아 대표 Ljudmila Boskova, 노르웨이의 Karin Stoltenberg, 튀니지의 Rafcka Khouini 세사람이 선출되고 서기에는 태국의 Sweeya Santipitaks가 뽑혔다. 선거를 통해서 진출하는 45개국의 여성지위위원중 일원인 한국대표는 앞부분에 자리가 배치되고 그밖의 140국 대표는 뒷줄에 좌석이 배치되었는데 위원국이 아닌 북한의 자리는 방청석근처 출입구쪽으로 명패가 놓여 있었으나 대표는 유엔대표부 외교관으로 보이는 북한 남성이 가끔 모습을 보일 뿐 여성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정부대표단과 별도로 민간단체 옵저버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회장, 사무총장, 국제관계위원장과 한중여성교류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미국 현지에서 거주하는 교회여성대표와 원불교여성대표 그리고 미국방문체류중이던 정숙자 목사도 합류한 한국대표들은 회의개회중 내내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북경여성대회이후 한국이 가장 많은 여성관련 정부정책을 발표한 나라로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비정부기구 브리핑으로 시작해서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10시부터 1시,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여성지위위원회 본회의는 빈곤, 여성과 미디어, 어린이와 부양가족을 돌보는 문제에서 남성과 여성의 책임분담문제 등을 여러차원에서 논의하고 병행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관심분야의 토론회와 보고회가 개최되었다. 특기할 것은 미국의 암저그여사가 주도하는 여성의 환경과 발전기구(WEDO)가 주관해서 매일 개최한 여성연대활동이었다.

WEDO는 금년 3월 8일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북경대회이후 세계적으로 어떤 후속조치가 있었는지를 조사해서 58쪽짜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아쉽게도 한국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회의중에 한국대표가 발표한 정부의 10대과제 발표내용과 여성기본법 통과사실을 들고는 우리일처럼 함께 반겨주고 다음번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왔다.

WEDO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UN공식회의 언어권(5개국어)밖의 나라들이 북경에서 채택한 행동강령을 자기나라말로 번역 출판하고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기구를 조직하여 가동하고 E메일, 웹 사이트의 활용, 국제간의 팩스사용, 인터넷 참가등 국제통신수단의 현대화로 이어진 북경대회의 새로운 통신기술 소개와 보급이 효과적이었음을 지적했다.

멕시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행동강령 실천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고 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16억 불을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 투자로 출자하고 24시간 가동되는 가정폭력 고발전화를 설치했다. 캐나다는 성별에 의한 정책과제분석을 통한 정책 평가와 새로운 계획설정을 선언했다. 많은 나라들이 현존하는 기구를 강화하거나 신설기구를 만들어 행동강령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준비를 구체화 했는데 그 중심적인 역할을 여성부나 외무부 혹은 국무부가 맡고 또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성문제와 유대를 가진 관련부처 장관과 기구가 모여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더 나아가 입법부와 사법부까지도 총망라한 기구를 만들기도 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등 남미 여러나라들이 그 예가 된다.

어떤 나라는 행동강령 실천기구에 정부기구 대표뿐만 아니라 여성단체와 비정부기구(NGO)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어떤 나라의 기구는 행동강령 실천을 책임진 기관과 사람을 명기하기도 하는데 미국의 경우는 각 행동강령 항목을 실천에 옮길 부서와 책임자의 전화번호부를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행동강령의 실천의지를 밝혔다. 북경대회가 행동강령의 중점을 세력화(empower-

ment), 주류화(main streaming), 연대화(networking)에 두고 그 후속조치로서는 이번 회의에서 실천화(implementation)를 계속 강조했다.

지난날의 외교는 정부 대 정부로서 행정부 대표간 또는 입법부 대표자간에 이뤄져 왔으나 교통통신이 발달하여 서로 다른 나라 사이에 다면접촉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외교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가와 비정부기구(NGO)가 함께하는 다각적인 양상으로 바뀌었다. 특히 여성관련 기구의 다면성과 다양성은 국제유대를 통해서 한나라의 정책이 여러나라에 영향을 주어 그 실천과정이 피차간에 자극이 되어 전세계 여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실감케 해주는 계기로서 이번 UN의 여성지위위원회의 의미가 컸다.

우리나라의 10대 과제는 정부 수석대표인 김장숙 정부 제2장관의 보고와 영문판매프트를 통해서도 잘 알려졌지만 NGO의 모든 회의에서 논의되었고 참가한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평가는 한국인의 민주화에 관한 것이었는데 동남아 대표들과 아세아 태평양지역 국가대표들과의 모임에서 한국은 전직대통령들의 실책을 당당하게 따지고 옹정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이 행사했다는 것과 부패정권이 10년이상 지속되니까 다리가 떨 어지고 백화점이 붕괴되는 것이라고 하는 코멘트, 그리고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 국민개인소득 1만불을 이룩한 경제적인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라며 한국의 문명정부가 10대과제 실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많이 뒤떨어진 정치권 여성참여도 순식간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해 보일거라는 격려적인 기대감에 접했을 때는 감격스럽기까지 했다.

이제 한국은 우리에게 기대를 거는 많은 나라들의 목표가 되었다. 경제만 발달하고 여성의 지위가 하위권에 머물러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여성운동은 인권운동이고 남녀 모두의 인권향상은 선진한국을 만들어 나가는 첫번째 조건이다. 제41차 여성지위위원회에 나가서 더 앞서가는 우리의 자랑스런 한국 여성의 당당한 위상을 보여주고 싶다.

제4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다녀와서 ②

김금래 (본회 사무총장)

지난 3월 11일~22일 뉴욕에서 개최된 UN 제40차 여성지위위원회는 NGO 회의를 2~3일전부터 별도로 개최하던 종전의 관행을 깨고 본 회의에 NGO들을 옵저버로 참석할 수 있게 하였다.

작년의 회의가 북경여성대회 준비 관계로 NGO들이 2,000여명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던 반면 금년은 300~400명 정도가 참가하여 상대적으로 조촐하고 차분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처음 이 회의에 참가할 때는 NGO들은 옵저버 자격이니까 특별한 역할은 없고 UN에서 토의되는 여성문제들 분위기만 알고 오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매일 오전 NGO 브리핑과 NGO Committees on the Status of Women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WEDO에서 매일 오후에 개최하는 Daily Women's Linkage Caucus에서는 NGO들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하고 토론을 하였다.

김장숙 정무 제2장관을 비롯한 정부 공식 대표들은 본 회의에 참가를 하고 이연숙 회장을 비롯한 우리 NGO 일행은 본회의 방청뿐 아니라 WEDO 모임에 참가하였다.

북경 여성대회이후 각국의 진전 상황을 토론했는 자리에서 이연숙 회장은 한국의 여성사회참여를 위한 세계화추진위원회의 10대 과제와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음을 발표하여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대개의 나라가 북경대회이후 여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라는 계획에 불과한데 비해 한국은 여성발전을 위한 확실한 성과를 얻어낸데 대해 세계 각국 여성지도자들은 찬사와 부러움을 보내었다.

이날의 성공적인 발표로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준 탓인지 이틀날 모임에서는 각 대륙별로 매일 번갈아 사회를 맡기로 하였는데 아시아를 대표해서 이연숙 회장에게 사회를 맡아 달라는 집행부의 제의가 와서

국제회의 데뷔 이틀만에 사회를 맡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뿌듯한 감회를 맛보았는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하였고 한국여성의 지도력이 국제 무대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과거 초창기 여협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세계여협에 가입하고도 총회 참가 여비가 없어 대표파견을 못하고 공문으로 대신하기로 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다. 그때와 비교하면 나라도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고 여협도 이런 회의에 4명씩 참가할 정도로 성장한 것이 고맙고 감격스러웠다.

우리는 UN 주재 대사관에 NGO로서 UN회의에 참석함을 미리 알리고 대사 면담을 요청하였다.

국제외교 무대에서 NGO 활동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며 정신대 문제 등은 민간단체의 역할로 일본에 대한 우위적인 이슈가 되는 등 NGO의 역할이 중요함을 잘 알고 있기에 안보리 회의때문에 바쁜 가운데도 박수길 대사가 여협 참가단을 위해 어렵게 조찬을 마련하였다.

이와같이 민간단체들이 국제회의에 참가할 때는 회의 개최국 대사관에 알리고 민간단체 하는 일을 홍보하고 조율하며 공식화할 것을 권하고 싶다.

또한 세계여협 회장을 만나 긴밀한 관계를 만들고, 내년 임원 선거때 한국에서 여러명의 대표를 입후보시키기 위한 입지를 마련한 것과 금년 8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동아시아 포럼에 참가할 중국측 대표와의 교섭도 이루어졌다.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세계 곳곳에서 온 여성들에게 한국의 여성운동을 알리는 것은 외교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같은 활동을 하는 여성들끼리 유대감을 강화하며, 앞선 나라에서 아이디어도 얻고 자극을 받는 것도 국제회의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여성학 지상향좌



다매체 시대에 더욱 필요한 수용자 운동

박혜란 (이화여대 여성학강사, 여성신문 편집위원)

여성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여성들이야말로 가장 막강한 미디어 수용자라는 위치를 살려서, 미디어의 메시지를 변화시켜 나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성의 입장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고 어머니의 입장에서 선정성과 폭력성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매체 시대로 들어서면서 우리의 미디어 환경은 하루하루 놀랄 만큼 달라져 가고 있다. 우선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스스로 TV나 라디오를 켜지 않더라도 이 사회에 살고 있는 한은 어떤 경로로든 방송에 노출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게끔 되어 버렸다. 케이블 TV가 개설된지 1년만에 30개 채널로 늘어나고 가입자도 50만 가구를 훌쩍 넘어섰는가 하면 뉴스나 음악 영화 전문채널은 이미 상당한 시청자를 확보함으로써 본채도에 진입한 듯한 인상이다. 또한 방송의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오락 기능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기능, 정보전달 기능 이외에 쇼핑 채널을 통한 시장 기능까지 맡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과거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언론사들은 인쇄매체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갖은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얼마 전의 과다한 지면경쟁에 이어 최근에는 언론사마다 전국민에게 인터넷 교육을 시키겠다고 타 언론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동네마다 갖가지 지역정보를 실은 지역신문들, 소식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잡지시장에는 기존의 종합지나 여성잡지들에 덧붙여 보다 전문화된 다양한 잡지들이 수없이 발간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용자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이 미디어, 그 중에서도 방송 미디어와 접촉하는 시간이 남성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날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막강한 영향 가운데

역기능적 요소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자녀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에게 더 절실하게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다.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갖가지 이론이 제기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여성들은 매스 미디어가 선택적인 제시와 특정 주제의 강조를 통해서 사회적 사실 규범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여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스 미디어의 막강한 영향력을 사회변화의 도구로 삼아 여성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사용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잘못된 가부장제 문화를 청산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게 됨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제까지 발표된 논문들이나 보고서에 따르

면 대부분의 매스 미디어들이 여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킴으로써 여성의 발전을 저해시키며, 청소년들에게도 역시 지나치게 소비적이고 쾌락추구적인 측면을 과장하거나 폭력 등의 사회악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킴으로써 오히려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저해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근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끔찍한 흉악범죄 가운데 상당수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온 범죄를 모방했다는 사실은 미디어의 역기능에 대한 여성들의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의 다변화는 수용자에게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히 미디어간의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가짜나 문제시되어 왔던 미디어의 선정성과 폭력성을 더욱더 부추긴다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각 방송사간의 시청률 경쟁은 시청률 자체의 신뢰도와 상관없이 프로그램 제작자들을 시청률의 포로로 만들어감으로써 저질 프로그램의 양산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규제하기 위하여 미디어는 심의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심의의 관행이나 초점 방식 등에 대해서 제작자나 수용자들 모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다.

무엇보다도 언어나 의상 또는 머리모양 등 겉으로 드러난 단편적인 표현보다도 내용 전반에 깔려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주의깊게 심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구성상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의 눈에는 성차별적 가치관이 거슬리게 느껴지지 않을 것은 뻔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심의위원들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이다.

미디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견제방법은 결국 수용자들에게 달려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미디어와의 접촉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들의 역할이 부각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만약 여성들이 수용자의 위치가 아니라 미디어 내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면 여성들은 미디어를 통한 '세상 만들기'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디어 산업은 막강한 자본력을 요하기 때문에 여성이 접근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미디어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아직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정책결정과 상관없는 뒤치다꺼리 일에 종사하고 있다. 요즘 각 방송사들의 경우 대부분의 프로듀서가 남성인 반면 대부분의 구성작가들은 여성들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신

세대들에게 매스 미디어 종사자가 최고의 전망직종으로 떠오름에 따라 여성들은 더 불리한 위치로 몰리고 있는 추세이다.

미디어의 정책결정자들이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보수성을 확인케 해주며 특히 성차별적 가치관을 유지 강화시키는 요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책은 여성들이야말로 가장 막강한 미디어 수용자라는 위치를 살려서, 미디어의 메시지를 변화시켜 나가는 일이다. 여성의 입장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고 어머니의 입장에서 선정성과 폭력성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여성의 눈으로 볼 때 여성의 입장과 어머니의 입장은 서로 다른 입장이 아니다. 성차별적 요소나 선정성 폭력성은 가부장제문화에 내포된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최근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구성한 다양한 모임들에서 다양한 매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수용자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은 그런 점에서 매우 반가운 현상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프로그램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집의 채널만 돌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여성들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온 동네의 미디어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각성에 이른 것은

단순히 여성의식의 확산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바야흐로 시민운동이 대중성과 일상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여성들 중심의 수용자 운동은 그들이 미디어의 주 수용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광고주가 생산하는 상품의 주소비자라는 면에서 제작자 측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용자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이론적 무장이 탄탄해야 하며 또한 여성들의 힘을 한데 결집할 수 있는 조직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수용자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여성들은 매스 미디어의 성차별적 이미지와 메시지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여성의식이 얼마만큼 확고한지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론 이때의 여성의식이란 합은 남성과 여성을 대립의 구도로 놓거나 적대관계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남녀의 평등한 공존관계에 대한 모색을 목표로 하는 시각을 의미한다. 나아가 남녀관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종류의 편견에서 벗어나 보다 열린 시각으로 인간과 세계를 보는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기실 매스 미디어의 성차별적



메시지를 가려 내어 비판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성들 자신이 가부장제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성차별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의 의식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여성들 스스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건강을 버리며 몸매를 가꾼다거나 또는 미디어에 나오는 모든 여성을 용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한편으로는 미디어가 여성을 상품화한다고 비판한다면 설득력을 얻을 수 없는 법이다.

또는 스스로는 오락적인 프로그램만 선호하고 소위 '건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미없다고 외면하면서 미디어가 저질문화를 퍼뜨린다고 비난하는 것도 모순이다.

일단 여성의 관점을 확보한 후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쉽다. 그 기준 위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분석하되 중요한 것은 단편적인 표현보다 그 프로그램의 바탕에 깔려 있는 철학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소홀하게 취급된 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나쁜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한 평가도 수용자 운동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운동의 방법도 확실성을 탈피해야 한다. 모임을 통한 조직적인 운동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동시에 보다 즉각적이고 개별적인 방법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청소년들에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컴맹엄마, 컴팡아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정보화 시대를 맞아 세대간의 단절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컴퓨터 앞에 앉은 자녀가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전혀 모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다매체 시대의 전개가 여성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수적이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회의 개최

제4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가 지난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김장숙 정무제2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참가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민간단체 관계자들도 참가, 세계 비정부기구와의 연대를 다지는 한편 우리나라 여성단체활동을 소개했다.

이번 여성지위위원회는 95년 9월 북경서 열린 제4차 유엔세계여성회의의 후속과제를 중점으로 다루는 회의였다. 빈곤·여성과 미디어·아동보육과 남녀 책임분담문제 등 북경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관심 분야에 따른 전략목표와 행동조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집중 논의했다.

우리나라를 포함, 45개 위원국과 옵저버국, 유엔 기구, 정부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이 참석대상이었다.

우리나라는 86년부터 옵저버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해왔고 93년 3년 임기(94~97년)의 위원국에 피선됐다. 현재 위원국은 아시아 11개국, 아프리카 13개국, 중남미 9개국, 동구권 4개국, 서구 및 기타지역 8개국 등 45개국이다.

여성단체 공개강좌 잇달아

일반인을 위한 여성학강좌, 성문제 특강 등 여성단체들이 회원 및 비회원들을 위해 마련하는 강좌들이 늘고있다.

한국여성사회교육원은 4월 8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제8회 여성학강좌를 갖는다. 신당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이 강좌는 일반 직장인에게도 문을 개방하고 있다.

여성학은 어떤 학문인가, 한국남성의 심리, 그 현실의 문제, 여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가족문제와 가족법, 일하는 여성의 법적 권리, 평등을 향한 여

성의 발자취, 건강한 성, 행복한 성, 정보화사회와 통일을 맞이하는 여성 등 제목이 강의내용을 말해 준다.

한국여성민우회부설 가족과 성 상담소는 열린 가족관계를 위한 공개강좌를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열었다.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가족, 우리시대 부부문제, 자녀성장에 따른 부모자녀의 갈등과 해소, 여성의 정신건강과 상담 등이 강의내용.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여성들에게 개방된 이 강좌는 건강한 가족 만들기에 목표를 두고있다.

성남 여성의 전화는 제1기 열린 여성학교를 지난 4월 12일까지 열었다. 이 강좌는 세상을 향한 문열기, 민주적인 사회·평등한 가족, History에서 Hers-tory로(남성중심역사에서 여성중심역사로), 여성발언대 등으로 짜였다. 성남 여성의 전화는 이 강좌를 다 들은 여성들에게는 여성전문상담원 교육에 참여할 자격을 주기로 했다. 그래서 여성들이 전문상담원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이 강좌의 목적의 하나다.

여연 이미경공동대표, 민주당 전국구 후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미경 공동대표가 통합민주당 전국구 후보제의를 수락한 데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여연은 이 성명에서 "여성의 요구를 대변할 여성대표를 국회로 보내는 것이 여성운동의 영역확산에 유리하다는 판단과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 정치분야의 할당제 도입을 주장해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공동대표는 87년 여연 창립때부터 9년째 여성권익운동에 힘써왔다.

여연은 "여성관련 법제정운동서건 민간통일운동,

일본군 위안부문제해결 등에서 일해온 이미경 공동대표가 국회에서 여성권익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직업상담가 교육과정 개설

여성직업상담가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직업」이 나올 참이다. 서울YWCA 독산동 근로여성회관은 4월 1일부터 24일까지는 초급,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중급 등 두가지 단계로 나눠 여성직업상담가 훈련과정을 개설했다.

좁은 취업문 앞에서 좌절하는 여성들에게 전문적인 진로지도가 이뤄지도록 돕는 「여성직업상담가」는 사회단체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직업상담을 맡는 이들이나 직업상담에 관심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

직업상담가의 역할 및 자질, 직업관련정보 수집 및 관리, 학교에서의 직업상담, 직업의 세계,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이 교육과정에 들어있다. 서울YWCA 근로여성회관은 이번 제1기 여성직업상담가 교육을 마친 뒤 교육과정을 보강, 지속적으로 직업상담가를 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개발원, 영어패널토의

한국여성개발원이 여성들의 영어능력을 키우고 공동주제에 관한 다국간 문화적 이해를 높이기위해 마련한 영어패널토의가 2년째 계속되고 있다.

한가지 주제를 정해 우리나라 전문직여성들과 주한외국인이 영어로 토의를 하는 이 모임은 올해 6번 열릴 예정이다. 95년 시작된 영어패널토의는 국내 여성들이 국제적인 세미나 등에서 활발히 의견을 펴고 국제무대에서 거침없이 활동하는 「간접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월 18일 열린 영어패널토의는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위한 교육: 자녀들의 가치관을 높여주는 방법」을 주제로 삼았다. 장성자 여성개발원 사업본부장의 사회로 김성은 서울신학대학교수, 손지애 한국주재 CNN서울특파원 지국장, 에디 문 서울외국인학교 교사, 실비 위사트 주한호주대사관 2등서기관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일본정부의 민간기금모금 반대회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획위원장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인 지은희 대표가 지난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4차 일본군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에 참가했다.

이 회의는 한국·인도네시아·대만·일본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국들이 모여 일본정부가 정신대 피해자들을 무마하기 위해 눈가림으로 내세우는 민간기금모금 계획을 반대하는 자리.

연대회의는 이번 회의에서 리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되도록 압력을 넣기로 결의했다. 우리나라 지은희 대표는 이 회의에서 '왜 국민기금은 해결책이 아닌가'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가정폭력은 이제 그만

가정이라는 울타리안에서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가정폭력을 사회에서 법으로 다스려야한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통상 「부부싸움하다 그럴 수도 있지」 「남의 집안 일인데…」하며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되는 아내 구타를 비롯, 노인·어린이학대 등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하자는 뜻이다.

가정폭력의 피해는 어느 폭력범죄 못잖은 후유증이 큰데다 사회적인 존속살해 사건, 날로 흉포화되는 청소년범죄 등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아내구타 전문상담기관인 한국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실제 매맞는 아내들중 골절상 등 심한 상처를 입는 예가 적지 않다. 여성의 전화 상담창구를 찾은 피해여성의 50%가 병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게다가 가정에서 벌어지는 살인·폭력사건의 상당수가 아내구타에서 비롯되고 있어 사회적인 악순환으로도 이어진다. 폭력가정에서 자란 남자아이가 후에 아내와 자녀를 학대하는 남편이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여성의 전화의 통계를 보면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의 70%가 폭력가정에서 자랐다는 상관관계가 나온다.

한국 여성의 전화는 이처럼 가정에서 해결되도록 방지할 수 없는 가정폭력문제를 사회적인 규제로 끌어내기 위한 운동을 펴고 있다.

여성의 전화는 올한해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해」로 삼고 3년여 펼쳐온 법제정운동의 마무리작업에 한창이다. 여성의 전화는 11개 지부가 손잡고 이달 중순까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총선을 겨냥해서는 각 정당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여성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같은 요구서는 각 정당이 최근 발표한 공약에 반영됐다.

여성의 전화는 자문변호인단의 도움으로 가정폭력방지법의 시안도 마련해놓고 있다. 지난달 1차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법안의 취약점을 보완, 시안을 손질하는 중이다. 가정폭력방지법 시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정폭력방지법 예산확보, 1차적인 예방조치, 각 지역의 상담기관 설치와 처벌방면으로 폭력상황에 경찰관의 즉시 개입 등의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오는 5월엔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공청회를 연 뒤 국회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여성의 전화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을 좀더 효과적으로 펴기위해 94년 여성단체, 시민단체, 아동단체 등과 어울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을 위한 전국연대」를 조직했다.

연대모임을 조직한 이유에 대해 여성의 전화 정준숙 인권상담부장은 “가정폭력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어린이 등 약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결국 가족구성원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성의원 사진전

제헌국회에서 14대 국회까지 여성국회의원들의 활동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전 개막식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운현궁미술관에서 있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26일까지 여는 「한국여성국회의원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에는 여성의원들의 본회의 활동, 정당활동 등을 담은 사진 등 80점이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는 역대 여성의원 49명의 인물사진도 전시되었다. 14대를 통틀어 여성의원의 인원수는 68명이며 2~3선의원을 빼면 실제 여성의원은 49명이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94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원 비율은 2%로 미국(10%), 중국(21%), 노르웨이(39%) 등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며 여성의 정치참여를 부추기기위해 이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동국대 조은교수, '절반의 경험 절반의 목소리' 펴내

동국대 사회학과 조 은 교수가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여성사회참여확대 10

대과제의 앞뒷얘기를 소상히 풀어 최근 책으로 엮었다.

조교수는 10대과제가 나오기까지 15회의 조찬, 40여회의 회의에서 오간 각 부처 관료들의 발언을 부처와 직함을 밝히며 ‘절반의 경험 절반의 목소리’(미래미디어 간)에 담았다.

“행시, 외무고시에 여성을 일정비율이상 합격시키자는 고용목표제에 대해서 특히 재정경제원이 몹시 반발하더군요. 사기업에 미칠 여파를 우려했기 때문이지요.”

이 책은 세추위 여성정책소위원회 전문위원이자 여성 10대과제의 간사로 일하면서 느낀 조교수의 회노애락을 섞었지만 결국은 10대과제의 역사적 기록이다.

행시, 외시에 2000년까지 여성을 20%이상 합격시킨다는 여성고용목표제는 근래 드물게 여성계의 환영을 받은 획기적인 내용이다.

이 제도는 정부 부처들의 심한 반대로 발표직전까지 보고서에서 빠졌다가 막판 여성계의 거부성 명계회동 압력에 밀려 보고서를 다시 인쇄하면서 살아난 안전이라고 조교수는 밝힌다.

“재경원 차관이 여성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어떤 경제학자도 검증하지 못했다고 따졌지요. 또 여성들이 해외출장을 못간다길래 비행기타면 스튜어디스는 댐 여성이더라, 여성들에게 야근을 못시킨다길래 병원 간호사들이 야간근무하는 것 못보았느냐며 농담삼아 대꾸했지요.”

그는 많은 회의를 하면서 정부관료들이 여성인력에 대해 「좁은 시각」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며 정부 부처에 보다 많은 여성이 진출해야 여성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구경 (경향신문 기자)

안내

「안전점검의 날」, 다함께 참여합시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96. 4월부터 시행)입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산업현장, 가정, 학교, 공공장소 등 우리사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발생요인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전국민적인 행사입니다.

※4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의 평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시행합니다.

■ 산업안전점검(제조업, 건설업)

- 제조업 : 사업주, 근로자대표 및 안전보건관계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합니다.
- 건설업 : 사업주(현장소장), 근로자대표 및 안전관계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합니다.

■ 학교안전점검

- 각급 학교단위로 교사와 학생이 학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을 위한 점검을 합니다.

■ 교통안전점검

- 소유차량에 대한 자율적인 차량점검과 보수를 하고 교통규칙 지키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합니다.

■ 공공안전점검

- 시설물, 교량 등 대중 이용시설의 이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관계자에게 신고합니다.

■ 가정안전점검

- 가스, 전기, 유류, 위험 시설물 등에 대해 가족이 함께 점검합니다.

전국 여성단체 지도자연수



본회는 지난 4월 2일~3일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120여명의 여성단체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여성단체지도자연수'를 개최하였다.

본회 임원, 위원, 회원단체 및 시도여협 임원, 관련기관 인사들이 참석한 이번 연수는 개회식에서 이연숙 본회 회장의 개회사와 평창군 김용욱 군수의 환영사, 김장숙 정무 제2장관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서 '정보화시대와 여성'에 대한 백석기 한국정보문화센터 본부장의 강의와 '여성운동의 방향'에 대한 박숙자 연대여성연구소 연구원의 강의를 있었다. 이 두 강의를 통해 정보화시대에서의 여성의 역할변화 및 여성의 지위향

상을 위한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으며 여성의 정치세력화, 성평등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사회봉사를 위한 실천방안 등이 논의되어 참석한 여성지도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저녁의 유대강화 시간에는 네 팀으로 나뉘어 각 팀마다 장관을

내세워 각 부에서의 여성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보는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에는 여성단체의 활동방향과 올 10월에 있을 전국여성대회의 주제 선정에 대한 토론을 하였고 서울로 오는 길에 오대산 월정사를 관광했다.

이번 지도자연수는 대통령부인 손명순 여사의 격려전보와 강원도 여협, 평창군 여협의 배려로 행사의 즐거움이 배가되었다.

소비자모니터 교육

본회는 지난 3월 12일, 13일 양일간에 걸쳐 소비자 모니터 교육을 실시했다. 모니터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첫째날 가정경제와



주부의 역할(전춘규,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 상담역), 위조상품의 식별요령(송윤기, 특허청 조사과 사무관), 환경마크제도와 녹색 식품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상영, 환경마크협회 사무국장),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식품선택(김영희, 대한영양사회 부회장)의 강연이 있었고 둘째날에는 삼성전자 수원공장을 시찰했다.

공명선거 캠페인

본회는 다가오는 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깨끗한 투표권 행사로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이번 선거가 과열, 타락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공명선거캠페인을 지난 3월 25일



실시했다.

회원단체장 및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갑시다', '공명선거-그것은 민주주의 뿌리입니다', '나라살림에도 여성의 살림 솜씨가 꼭 필요합니다'라는 문구

가 실린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거리 홍보를 벌였으며 '이런 사람을 뽑읍시다', '이런 사람은 뽑지 마시다'라는 내용의 후보선별 방법을 실은 전단을 명동일대에서 배포하며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드라마 작가와의 간담회

본회는 지난 3월 26일 롯데호텔 아테네가든에서 박정란(울밑에선 봉선화, 사랑의 향기, 고백 집필) 씨와 최연지(질투, 연인, 다시 만날 때 까지 집필)씨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드라마 추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드라마의 지대한 영향력을 감안해 앞으로의 집필 활동에서 바람직한 여성상을



학교별, 직위별 여성 비율

교육은 한 나라의 백년대계로 국가적 차원에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기본적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위를 획득하고 개인의 지적, 도덕적 성취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교사비율에 있어 고등교육기관일수록 여교사의 비율이 낮으며 또한 각 학교 교사의 직위에 있어서도 고위직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양성평등교육을 지향하는 사회적 요청에 발맞추어 이를 교육현장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학교에서의 교사나 교수 선임 및 고위직의 여성 채용이 요청된다. <자료: 교육부(1994), 교육통계 연보>

	계 (명)	여자 (명)	여자비율 (%)		계 (명)	여자 (명)	여자비율 (%)
국민학교	139,096	75,848	54.5	고등학교	97,064	22,578	23.3
교 장	5,895	213	3.6	교 장	1,727	65	3.8
교 감	6,652	421	6.3	교 감	1,916	43	2.2
주임교사	26,932	7,572	28.1	주임교사	17,131	1,185	6.9
교 사	99,206	67,299	67.8	교 사	75,299	20,601	27.4
임시교사	411	343	83.5	임시교사	991	684	69.0
중학교	99,775	48,931	49.0	고등교육기관	54,135	11,607	21.4
교 장	2,352	170	7.2	총(학)장	308	25	8.1
교 감	2,665	153	5.7	교 수	14,617	1,591	10.9
주임교사	7,173	3,782	52.8	부교수	10,799	1,529	14.2
교 사	75,218	42,809	56.9	조교수	9,885	1,567	15.9
임시교사	2,367	2,017	85.2	전임강사	6,327	1,120	17.7

많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본회에서는 이연숙 회장, 한말숙 전 기획위원장, 김영자 기획위원장, 전상금 매스컴모니터 회장등이 참석하였다.

안전문화촉진대회 참가

본회는 지난 3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안전문화촉진대회에 이연숙 회장을 비롯해 소비자모니터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의 대회사, 재해를 1% 미만 달성 및 안전문화추진 계획에 대한 전 노동부장관의 보고, 이수성 국무총리의 치사, 안전문화 심볼마크 및 캐릭터 당선작 발표, 민간

단체의 재해예방 참여를 본회 이연숙 회장이 제안했으며 이어 재해예방 결의문 채택이 있었다. 또한 산업, 학교, 공공 안전문화 3개 분야에서의 안전대토론회가 있었다.

안전문화촉진대회는 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국민적 안전생활의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계기로서 인명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둔 안전의식을 우리 사회에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협동회원단체 5단체로 늘어

본회는 지난 3월 19일 이사회에서 대전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와 강원도 여성단체협의회를 협동

회원 단체로 가입시키기로 결의하였다.

대전광역시 여협(회장: 김은숙)은 지난 89년 3월에 창립되었으며 9개 단체 약 48,68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원도 여협(회장: 윤병길)은 지난 74년 4월에 창립되었으며 29개 단체 약 130,0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동정란

제40차 여성지위 위원회 참석

본회 이연숙 회장과 최영희 국제관계위원장, 하영애 한중여성교류협회 회장, 김금래 사무총장은 지난 3월 11일~22일까지 뉴욕 UN본부에서 있는 UN 제40차 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했다.

이연숙 회장 일행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세계NGO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으며 세계 여성계에 한국의 여성활동을 소개하고 돌아왔다.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펜실바니아대학 쥬디스로딘 총장 초청 강연회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은 지난 3월 25일 오후 6시30분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펜실바니아 대학 쥬디스로딘 총장을 초빙, 강연회를 가졌다. "정보화시대의 대학교육과 여성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로딘 총장은 미국사회내에서 여성의 진출은 각 방면에 걸쳐 보다 활발해지고 있으나 대기업분야에서의 여성진출은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자신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남성에 비해 2배, 3배의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여성의 진출과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도 중요하지만 여성 자신의 배가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딘 총장은 미국의 펜실바니아대학 7대 여총장으로 현재 18명으로 구성된 클린턴대통령 자문위원회의 과학·기술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BPW회원과 김정례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를 비롯한 각계 여성지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15대 총선 과천·의왕선거구 후보자초청 정책토론회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은 지난 3월 29일 오후 2시 과천 시민회관에서 과천·의왕선거구 지역 유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초청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15대 총선이 21세기를 대비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연고주의·금권·관권선거를 타파하고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정책·인물대결의 선거

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이정자 연맹회장의 사회로 민주당 김부겸 후보, 무당과국민연합의 신하철 후보, 무소속 이희숙 후보와 김장권 숭실대 교수, 이상덕 한국여성의전화 부회장, 황은주 과천생명민회 조직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정책토론을 벌였다.

토론을 마친 후 각 후보자들은 선거법 준수, 금품향응 및 인신공격·연고주의 배격 등 공명선거의지를 결의하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안상수 후보, 국민회의의 이동진 후보, 자민련의 박재상 후보 등 주요정당 후보들이 당초의 약속을 깨고 토론장에 나타나지 않아 그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와 공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으며, 참석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한국여학사협회

김영자 제1부회장, 제12대 회장으로 선출



한국여학사협회는 지난 3월 5일 오후 2시 여학사협회 강당에서 제4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말숙 회장은 개회사와 인사말을 통하여 "3년 동안의 임기중에 여러 임원 및 회원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취임 당시 열과 성을 다해 여학사협회 발전을 꾀하려 했지만, 역부족으로 미진한 점도 많았다. 그러나 오늘 선출되는 회장과 임원들이 못다한 일들을 잘 운영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9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에 이어 '96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이 있는 다음, 앞으로 3년간 한국여학사협회를 대표할 회장 선출이 있었다.

투표결과 김영자 현 제1부회장이 제12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차기 김영자 회장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 ▲ 이화여대 영문학과 졸업
- ▲ 미국 Northwestern 대학원
- ▲ 이화여대, 성심여대 영문학과 강사 ('65년~'89년)
- ▲ 대학여학사협회 이사('82~'95년)
- ▲ 적십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87년~'93년)

천도교여성회본부

창립 72주년 기념식



천도교여성회본부는 지난 3월 25일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서울지역 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 7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순종 총무부장의 집례로 시작된 이날 기념식에는 청수봉전, 사계명낭독, 강령낭독, 연혁보고 및 천보경 회장의 기념사가 있었으며 이어 이연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김봉은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또한 상패수여 및 천덕송합창 등으로 기념식이 마무리 되었다.

여성문제연구회

'고속철도 경주 도심통과 백지화를 위한 대정부 청원 및 성명대회' 참가

여성문제연구회는 지난 3월 11일 한국일보 대강당에서 오전 11시부터 '고속철도 경주 도심통과 백지화를 위한 대정부 청원 및 성명대회'에 참석했다. 여성문제연구회에서 펼치고 있는 「바른 문화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고속철도 경주통과 반대운동은 그동안 꾸준히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17만682명의 서명인이 대정부 청원 및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이날 오후 2시에 이기영(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몇 명의 대표위원이 청원서 및 성명서를 청와대를 방문하여 대통령 앞으로 제출하였다.

여성문제연구회 윤용숙 회장은 이 운동의 발기인으로 그간의 경과보고를 하였고 이사 및 회원 15명도 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참여

15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확대

우 · 리 · 들 · 의 · 광 · 장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캠페인용 현수막을 제작하기로 결의한 타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여성문제연구회에서도 '나라 살림에도 여성의 살림솜씨가 꼭 필요합니다-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참가단체 68곳, 여성문제연구회'라는 문안을 제작하여 여성문제연구회 건물에 현수막을 걸고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제2대 회장으로 박정자 회장 선출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은 지난 3월 26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206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9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2대 회장 선출이 있었으며 제2대 회장으로는 1대 부회장이자 경기도지회 박정자 지회장이 선출되었다.

정정보도

지난 96년 3월호 여성 특집/② 회원단체 사업계획 중 p.16, 17에 게재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한국퇴역여군회의 사업계획 중 대한치과위생사협회 5, 6번은 한국퇴역여군회 사업계획이며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의 4번 하단부터 8번까지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업계획이고 한국퇴역여군회 5, 6번 사업계획은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의 사업계획입니다.

편집착오로 위의 세 회원단체 사업계획이 일부 뒤바뀐 것을 사과드립니다.

표지의 말

풍요



류민자 작

류민자씨는 1942년 서울에서 태어나 '홍익대 회화과'와 1981년 이화여대 교육대학원(미술교육 전공)을 졸업했다. 1970년 하인두·류민자 부부전 이래로 12회의 개인전과 80년 서울신문창간 35주년기념 동·서양화 정예작가 초대전, 90년 예술의 전당미술관 개관 기념전외 다수의 단체전 및 초대전을 열었으며 75년~77년 일본 동경에서 아세아 현대미술전 및 79년~84년 프랑스 파리의 Art Sacre' Art & Matiere Expression Spirituelle 초대, 79년에서 85년 프랑스 파리에서 Comparaisons전 등의 국제전을 가졌다.

제 3회 한국미술대상전 특별상 및 Association Belgo-Hispanica Belgique 왕족상의 다수를 수상했다.

본회를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특별 찬조금 •

김장숙 (정무제2장관)	금일봉
전재희 (광명시장)	금일봉
서명숙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부회장)	100,000원
김연순	30,000원

• 후원금 •

김춘자	10,000원
심연희	10,000원

후원자를 모십니다

본회는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본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본회의 목표와 활동에 찬성하시는 분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여러분의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10,000원 이상 보내주시는 분께는 1년분 '여성'지를 보내드립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동참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농협 한강로지점
067-01-001600
또는 지로용지 이용

후원금을 보내신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794-456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편집후기

방안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국내외의 사람들과 접하고 대화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는 정보사회에 적응하고 또한 시대적 요청에 앞서가기 위해 자기 분야에서 우리여성들의 분투를 기대한다.

明.

월간여성 · 1996년4월호 통권339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시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이연숙

편집인: 김금래

인쇄처: 코리아 헤럴드

사식·편집: 한라기획

발행날짜: 1996년4월10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 (대) 794-4560, 794-4450~1, 794-4766~7,

FAX: 796-4995

• 편집: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서은경

위 원: 김효자/나미례/문현경/박금옥/배동순/신동식/이경자/홍정희

담당: 이선명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4-456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부서	회기	이이	장장	이정	연연	숙숙	부부	회회	이이	장장	박박	영영	혜혜
감조재국소	직관리위원	이이	장장	이이	연연	숙숙	부부	회회	이이	장장	박박	영영	혜혜
비자보호연구위	관리위원	이이	장장	이이	연연	숙숙	부부	회회	이이	장장	박박	영영	혜혜
	관리위원	이이	장장	이이	연연	숙숙	부부	회회	이이	장장	박박	영영	혜혜

회원단체

회	원	단	체	명	회	장	주	소	전	화
대한간호협회	최영희	영희	회	중구 병림동 88-7	279-3618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여귀옥	귀옥	회	용산구 동자동 35-26	754-1707					
한국여학사협회	김영자	영자	회	도봉구 성문동 423-44	993-2378					
대한조선협회	안신아	신아	회	중구 장충동 1가 35-5	279-1972					
여성문제연구회	윤용숙	용숙	회	용산구 한남동 738-20 화성빌딩 302호	797-9185					
중앙부인회	김취애	취애	회	성북구 보문동 2가 7	928-2107					
가톨릭여성연합회	박애정	애정	회	중구 명동 1가 1번지 가톨릭회관 5층	778-7543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이안목	안목	회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오피스텔 1804호	704-2284					
한국부녀복지연합회	안김경중	경중	회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프라자빌딩 508호	712-0713					
한국여성항공협회	김하진	하진	회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오피스텔 1007호	786-1216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김은박	은박	회	서초구 방배동 925-5	585-3351					
한국우먼스클럽	은박	은박	회	성북구 보문동 2가 56-12	924-5923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은박	은박	회	서대문구 홍은동 265-90	394-2112					
국제존타한국연합회	박옥순	옥순	회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라이프콤비빌딩 507호	784-4851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최이숙	이숙	회	종로구 광화문 537-9	379-1872					
대한약사회여약사회	이예준	예준	회	서초구 서초동 1489-3 약사회관	581-1201					
우리웃음협회	왕준현	준현	회	영등포구 여의도동 3가 3번지 2·3호 백제약국 4층	738-6006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현은수	은수	회	영등포구 신길1동 115-14	833-1623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서문숙	문숙	회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마빌딩 501호	549-5161					
대한영양사협회	은수	은수	회	영등포구 신길7동 1351-3 천록빌딩 603호	842-2486					
국제여성승공연합회	김고정	고정	회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796-5333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기영	기영	회	마포구 노고산동 54-18	332-0914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정영숙	영숙	회	동대문구 전농4동 582-5	244-5208					
한국퇴역여군회	박정자	정자	회	성동구 용답동 236-10 삼호오피스텔 412호	214-2990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남상민	상민	회	종로구 견지동 111-1	738-1250					
한국자수문화협의회	박정자	정자	회	종로구 인국동 148번지 해영회관 807호	736-5350					
한·일여성친선협회	박영애	영애	회	중구 목정동 18 대학문화원 306호	273-7645					
한·중여성교류협회	윤송성	송성	회	광진구 화양동 48-3 용진빌딩 3층	463-2445					
알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라성묘	성묘	회	서대문구 연희동 137-10 영원빌딩 4층	3141-7840					
한국여류시각디자이너협회	김보천	보천	회	강남구 논현동 192-6 범한빌딩 3층	545-6789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이희기	희기	회	종로구 견지동 39-1 상운중심 2층 1호	738-5586					
천도교여성회본부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732-6867					
한국여성정보인협회				강서구 등촌동 645-11	3662-9417					

협동회원단체

협	동	회	원	단	체	명	회	장	주	소	전	화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옥희	옥희	회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동 2-42 신포동 동사무소 3층	032-763-8354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정영애	영애	회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664-55 전북여성회관 3층	0652-76-9675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김선규	선규	회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9 경기도여성회관	0331-39-8813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은숙	은숙	회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 2동 484-21 여성회관 2층	042-532-1610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윤병길	병길	회	춘천시 효자 2동 333 춘천종합사회복지관 내	0361-262-1306							

안녕하세요, 복지복권입니다 복이많은 복지복권

복지복권이 새로운 얼굴로
여러분에게 다가 갑니다.

36%이상의 높은 당첨율과 2배 1세트 2,000만원의 행운,
푸짐한 상품까지 드리는 복지복권은
그 수익금 전액이 근로자 복지에 쓰여지니
그야말로 또한 큼니다.
더욱 새로워진 얼굴로 만나는
복지복권으로 더 큰 당첨의 기쁨을 즐겨보세요.



복지복권의 새 얼굴 복권이 탄생!
복합상품과 더불어 근로자의 상생인
복합상품 복지복권의 새 얼굴로 탄생하여
다양한 상품과 더불어 복지에 활용 될 수 있는
복합상품 복지복권이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사계절 복지에
앞서 사계절 복지에

발행: 근로복지공단 판매: 조흥은행 국민은행

동의생금 치약 '95히트상품!

- 95년 한국경제신문 히트상품선정
- 95년 경향신문 히트상품선정
- 95년 매일경제신문 인기상품선정



감사합니다.

발매 6개월만에 소비자의
폭발적인 성원으로 동의생금치약이
한국경제신문, 경향신문, 매일경제신문에 의해
올해의 히트, 인기상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개발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국내 및 미국
특허출원



에경산업

